

金 呂 珠 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論文

西厓 柳成龍의 詩文學 연구

2005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漢文學科

趙 珉 慶

西厓 柳成龍의 詩文學 연구

金 呂 珠 教授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4年 11月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漢文學科

趙 珉 慶

認 准 書

趙珉慶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_____ ①

審査委員_____ ①

審査委員_____ ①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論 文 概 要

본 論文은 西厓 柳成龍(1542~1607)의 詩文學에 관한 연구로써 지금까지 집중 조명되었던 정치·사회적 연구에서 벗어나 사림파의 성리학적 사상과 더불어 문예의식을 지녔던 문인으로서의 서애를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기존 연구에 대한 現況을 밝히고 時代的 背景과 生涯, 文學觀, 詩世界, 文學史的 意義의 순서로 연구하였다.

時代的 背景과 生涯에서는 서애가 활동했던 시대적 상황과 전반적인 삶 그리고 交遊 상황을 고찰했다. 16C는 당쟁과 임진왜란 등의 사회적 혼란으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자 했던 과도기였지만 문학적으로는 문이재도적 문학관이 완성된 시기이며, 후기에 이르러서는 作詩에 있어서 主情的이고 興취를 중시한 唐詩로 그 경향이 변화된 시기였다. 서애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퇴계의 門下로서 성리학사상을 지니고 김성일, 정경세 등과 교류했고, 唐詩的의 문학 성향을 지니고 허봉, 허균 등과 교류했음을 알 수 있었다.

文學觀에서는 16C 문이재도적 문학론 아래 부화한 형식으로 글을 치장할 것이 아니라 자연의 性情을 발견하고 그 정신을 글로 담아 사회를 교화 해야한다는 시교적 관점과 시에는 형식보다는 시인의 내면적 정신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하며 직관적 興취와 沖澹등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심미적 관점이 서애의 주된 문학관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詩世界에서는 우선 대략적으로 형식적인 면에서 시를 분석하여 개관하고, 다음으로 내용적인 면에서 구체적으로 시를 분류하여 1) 사림파 문인의 문이재도적 의식이 담긴 吟詠性情의 面貌, 2) 자신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괴로움을 읊은 人間的 苦惱의 表出, 3) 자연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감흥을 은근하게 표현한 自然 觀照的 興趣, 4) 속세로부터 벗어나 隱逸하고 싶은 감정을 노래한 隱人 脫俗으로의 希求 등으로 나누었다. 이를 통해서 서애의 사상과 문학관이 어떻게 시로 형상화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文學觀과 詩世界를 통해서 본 서애는 16C 성리학을 바탕으로 문이재도적 의식을 지니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심미적인 문예의식도 지녔던 인물로, 唐詩風이 일어나기 시작하던 16C 후반에는 직관적, 감각적인 흥취를 詩文으로 표출하여 詩評이나 詩語선별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예의식을 지닌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서애는 16C 文以載道的 문학관을 정립하여 문장으로 담아냈고, 唐詩的 문예의식이 진작되던 시기에 심미적 시의식을 통해 詩文을 짓고 批評하기도 하였던 인물이었다. 그러므로 본 論文은 西厓 詩文의 문예적 면모를 고찰함으로써 문인으로서의 西厓 柳成龍을 재조명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目 次

論 文 概 要

I. 序 論	1
1. 研究目的	1
2. 研究現況과 方法	3
II. 時代的 背景과 生涯	5
1. 時代的 背景	5
2. 生涯과 交遊關係	11
1) 生涯	11
2) 交遊關係	14
III. 文學觀	18
1. 詩教的 觀點	18
2. 審美的 觀點	24
IV. 詩世界	30
1. 作品概觀	30
2. 作品分析	32
1) 吟詠性情의 面貌	33
2) 人間的 苦惱의 表出	41
3) 自然 觀照的 興趣	47
4) 隱人 脫俗으로의 希求	54
V. 文學史的 意義	63
VI. 結 論	66

參 考 文 獻

ABSTRACT

I. 序 論

1. 研究目的

西厓 柳成龍(1542~1607)은 중종대에 태어나 선조대에서 생을 마감하기까지 66년의 세월동안 문인관료로서 활동한 선조시대 대표적 인물이다. 黨爭이 시작된 시기에는 南人의 領袖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고, 壬辰倭亂에는 이순신과 권율 등의 名將을 천거하여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서애 류성룡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 문학이 아닌 정치·사회적 분야¹⁾에 집중된 것도 바로 이러한 정치적 역할이 대외적으로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서애가 정치 일선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했던 16C는 조선시대 문학사에서 큰 의의가 있는 시기였다. 16C 중엽에 이미 집권세력으로 군림하게 된 사림과 문인들은 정치적 기반을 굳히면서 동시에 문학적인 면에서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여, 기존 훈구파들의 수사적·형식적 문학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였고 성리학적 도학 사상에 뿌리를 둔 文以載道的 사림과 문학론을 형성했다. 作壇에 있어서는 說理的 宋詩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흥취를 중시하는 唐詩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

1) 김호중, 『서애 류성룡 연구』, 새누리, 1994

김호중, 「서애 류성룡의 정치사상 -정치운영과 인재등용을 중심으로-」, 『한국의 철학』, 제23호, 경북대 퇴계연구소, 1995

금장태, 「서애 류성룡의 철학사상」, 『한국의 철학』 제23호, 경북대 퇴계연구소, 1995

송공섭, 『서애 선생의 기본사상』, 서애기념사업회, 1978

조정기, 「서애 류성룡의 국방정책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 논문, 1984

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학특징은 후일 문학사에서 선조시대를 ‘穆陵盛世’라고 일컫는 모태가 되었다.

하나의 시대 패턴이 정립되었을 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물들의 시각과 의식은 시대의 흐름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것으로 본다면 16C에 활동했던 서애가 그의 詩文 속에 當代 문인으로서의 의식을 글로 표현했을 것이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16C 문인이었다는 피상적인 이유 외에도 지금까지 조명되지 않은 서애의 詩文들을 주목해 봐야 할 이유는 정치가로서만 평가되고 조명되어왔던 사람의 문집으로서 그 詩文의 數가 적지 않고, 문집을 살펴본 결과 文以載道의 문학관과 문예적 의식이 글로 담겨 실려있으며, 17C 대표적 시화 비평론자였던 허균이 서애에게 文章을 배웠고²⁾, 더욱이 몇몇 기록에서는 서애를 상당히 문학적인 조예가 있는 인물로 평가하였기 때문이다.³⁾ 『許蘭雪軒詩論』이라는 책에서는 許蘭雪軒 詩에 대한 最初의 평가를 서애가 『蘭雪軒集』에 대해 했던 評이라고 하였다.⁴⁾ 16C 시대적 배경 아래 퇴계의 문하였던 서애가 지은 詩文이 후대의 문학가들에 의해서 평가된 것을 보면 서애는 관료적인 성향 뿐 아니라 상당한 문예적 의식을 지닌 인물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本考에서는 文以載道의 사림과 문학이 완성된 시기이자 唐詩의 詩風이 興起하기 시작한 16C에 활동했던 서애의 詩文을 분석하여 문예적 모습을 발견함으로써 문인으로서의 서애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2) 이숙희, 『허난설헌시론』, 새문사, 1995. 28면 참조

3) 『西浦漫筆』에서 김만중은 『西厓集』에 실려있는 〈詩意〉에 대해서 서애를 평가하기를 독창적인 詩評能力을 가졌다고 했다. 또, 『西厓集』 「別集」에는 許筠이 누이 許蘭雪軒의 『蘭雪軒集』을 가지고 와서 跋文을 지어달라고 해서 지었다는 〈跋蘭雪軒集〉이 실려있다.

4) 이숙희, 『허난설헌시론』, 새문사, 1995. 2면 참조

2. 研究現況과 方法

서애는 선조 시대에 오랜 기간 정치 관료로서 활동하여 군사·경제·사회 등의 정책입안에 비중 있는 역할을 하였고, 봉당이 시작될 무렵에는 남인의 領袖로 조정의 要職을 맡았던 인물이었다. 그래서 서애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정치·경제·사회 등에서는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그에 비해 문학적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선 문학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몇몇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서애집』 권15 「雜著」 중 〈詩教說〉을 분석한 글⁵⁾을 보면, 서애의 학문을 知行合一 體用兼備의 경향을 띠었다고 평가하였고, 학문의 방법은 ‘以思爲主’, ‘知的 重視’, ‘新意’였다고 정의 내렸다. 시교설 분석에서는 성현의 重詩教, 詩可以怨에 대한 辯論, 詩教의 中庸 등으로 나누어 詩教를 정치와 교육의 근본으로 삼고자 한 서애의 견해를 정리했다. 인간 修養에 그 근본을 둔 서애는 詩教를 통해 올바른 인간을 육성하는 일을 중시했다고 평했다. 이 연구는 서애의 글을 순수 문학적인 면에서 고찰하기보다는 인간교육 및 정치운동에 활용하는 현실 운용적인 면에서 갖는 의의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하겠다. 또 다른 연구⁶⁾에서도 연구자는 서애의 詩보다는 文學論 및 思想에 초점을 맞추고 시문에 대한 서애의 다양한 생각을 정리하였다. 다양한 서애의 論著 중에서 문학세계와 관련 있는 글들을 분석하여 詩教論, 以學爲詩論, 新意論, 忠君憂國, 詩之好否 詩趣高下, 文藝經典 爲本의 文章으로 나누었다. 서애의 문학은 학문·정치·교육 등 모든 사상이 담겨있는 것이며, 문학자체를 위한 문학이 아니라 문학을 통하여 학문·정치·교육을 실현하려 했다고 하면서, 이것이 修己治人の 道를 실천한 典範이 될 수 있다고 평했

5) 김시황, 「서애 류(성룡)선생 시교설 연구」, 동방한문학회 제10집, 1994

6) 김시황, 「서애 류(성룡)선생 문학세계」, 한국의 철학 제23호, 1995

다. 이 또한 문학론 및 詩 자체에 대한 고찰이 아닌 문학 및 철학사상의 운용에 초점을 맞춘 연구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보듯이 이미 이루어진 연구들은 글 속에 담겨진 사상을 통해서 정치 및 교육과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순수 문학적인 연구라고는 볼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民族文化推進會가 1990년에 발간한 韓國文集叢刊 52권에 실린 『西厓集』을 기본자료로 하여 詩文學을 분석하고 문학적 특징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서애가 생존했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생애 및 교유 관계에 대해서 밝히고, III장 文學觀에서는 16C 사림과 문인으로서 갖는 문이재도를 통해 인격함양을 강조하는 詩敎的 觀點과 직관적이고 자연스러운 감흥을 통해 平淡한 美를 중시하는 審美的 觀點으로 나누어 문학관을 살펴보겠다. IV장 詩世界에서는 시교적 관점과 심미적 관점을 바탕으로 서애의 詩를 4가지 주제로 나누어 분석하려고 한다. 그 중 文以載道의 시각으로 자연이 담고 있는 이치를 파악하려는 吟詠性情의 面貌와 정치 관료로서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인간적 고뇌를 피력한 人間的 苦惱의 表出은 시교적 관점아래 분석하고, 자연을 관조하면서 平淡自然의 美와 자연스런 흥취를 느낄 수 있는 自然 觀照的 興趣와 出에 대한 반동으로 늘 자연 속 處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낸 隱人 脫俗으로의 希求는 심미적 관점아래 분석하고자 한다. V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서애의 詩文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서애가 정치적 면모이외도 문학적 면모를 지닌 인물이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Ⅱ. 時代的 背景과 生涯

1. 時代的 背景

16세기 후반에 와서 조선왕조는 일찍이 겪지 못했던 위기에 봉착하였다. 안으로는 당쟁이 발생했고, 밖으로는 국가의 주권을 위협하는 일본의 침략을 받게 된 것이다. 15세기 말 이래 中小地主로서의 在地的 기반 위에서 성장 해온 사림과 문인들은 선조의 즉위(1567년)를 전후하여 중앙 정계에 대거 진출하여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들은 기존의 정치세력을 갖고 있던 勳戚的 성격을 극복하고 새로운 형태의 정치질서를 모색해 나갔지만 그 내재적인 질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상호갈등을 빚음으로 인해 결국 1580년대에 이르러 東人·西人の 朋黨으로 分岐하게 되었다.⁷⁾ 宣祖初의 이러한 사림과 세력의 분기는 新·舊세력 간의 갈등에서 비롯되었지만,⁸⁾ 차츰 현실 인식의 차이, 정치적 지위의 차이, 학문적 차이 등이 심화되면서 學緣, 血緣, 地緣, 姻戚 關係 등에 따라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政派的 성격의 朋黨으로 발전하게 된다.⁹⁾ 후일 봉당이 公論에 입각

7) 東人으로는 金孝元을 비롯하여 柳成龍, 金誠一, 禹性傳, 郭再祐, 李山海, 鄭仁弘, 李潑 등으로 대개 李滉과 曹植의 門人이 많았으며, 西人에는 朴淳, 沈義謙을 비롯하여 尹斗壽, 尹根壽, 鄭澈, 趙憲, 李貴, 宋翼弼 등으로 李珣와 成渾의 門人과 交友가 많았다.

8) 新·舊세력을 대표하는 沈義謙과 金孝元의 반목과 대립은 吏曹銓郎의 인선문제로 기인했다.

9) 吏曹銓郎의 인선문제가 많은 물의를 일으키게 된 것은 그 職이 가졌던 권한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인선도 매우 엄격하였던 것이며, 또한 모든 人事銓注에 있어서 門閥, 經歷, 功過, 才否 등을 심사의 원칙으로 삼아 그 사람의 역량과 재능보다는 오히려 痕咎 有無만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한 정치를 수행했다는 긍정적인 評도 나왔지만, 당시의 붕당간 상호 비판과 견제는 정국의 혼란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과 더불어 15세기 말 이래 심화되어 온 사회·경제적 모든 정책면에서 안일주의를 팽배하게 만들어 官紀는 문란해지고 인심은 해이해졌다. 이와 같이 조선은 朝廷내부는 물론이고 국가 전체가 신분적·계급적으로 분열되고 국방은 거의 무방비상태였다. 1591년(선조24)에 통신사로 일본에서 돌아온 黃允吉과 金誠一의 정세보고를 듣고도 미리 대비하지 못한 조선은 壬辰倭亂(1592년, 선조25)으로 사회적 모순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전례 없는 黨爭과 外浸으로 인해서 발생한 혼란으로 전·후 시대가 나누어지는 변화 속에서 조선은 혼란하고 무질서한 사회를 잡아 줄 새로운 가치관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다음으로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난 문학적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C 成宗의 등극과 더불어 세력이 집중된 후 16C에는 이미 집권세력으로 군림하게 된 사림과 문인들은 그러한 요구를 수용하며 등장한다. 처음에는 공존했던 詞章 및 道學의 문학이 15C부터 사림파가 중심 축으로서 점차 세력을 굳히게 되면서 16C에 이르러서는 도학사상을 바탕으로 한 사림파 문학이 주된 문학관으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 사림파 문인들은 성리학적 정치철학 및 재도지기 문학관을 근거로 고려시대부터 계승되어 온 부화하고 형식적인 문학을 청산하고 문학에서 올바른 性情을 추구하는 문학관을 수립하게 되었는데, 형식면에서는 樸實함을 추구했으며, 내용면에서는 인성함양을 근본으로 삼았다.

자연을 바라보며 詩를 짓되 유미적 쾌락보다 ‘性情의 道’를 발견하고 心性을 기르려는 載道的 詩敎性を 중시한 사림파들은 溫柔敦厚하고 바른 性情을 체득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바른 이치를 얻는 방법은 올바르게 外物을 인식하는 방법에서 출발하는데 그것이 곧 ‘觀物’이다. 외부사물과 내가 합일되는 無我的 경지에서는 天理가 드러나고 외부사물의 성품과 나의 성품이 하나가 되는 虛心

의 상태에서 性情之正을 체득할 수 있다는 말이다. 觀物은 외부의 사물을 바라봄으로써 그 속에 구현된 이치를 읽어내고, 그 체득한 이치를 인간 삶과 연관짓는 것으로 儒家 인식론의 바탕이 되는데, 이는 宋나라 시대 邵雍에서 시작되었다.

무릇 觀物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치로써 보는 것이다. 천하의 사물은 이치를 담지 않는 것이 없고, 성정이 있지 않은 것이 없으며, 천명이 없는 것이 없다.¹⁰⁾

라고 말한 바와 같이 觀物은 자기 자신을 하나의 외부사물로 파악하고 이치로써 사물을 바라보는 것으로, ‘格物致知’와 같이 매우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사유 체계이다. ‘천하의 사물은 이치를 담지 않는 것이 없고 성정이 있지 않은 것이 없다.’는 『詩經』에서 말한 ‘鳶飛魚躍’¹¹⁾과 같은 뜻이다. 이것은 사물과 나의 理는 한가지이므로 ‘物我一體’를 추구할 때 비로소 올바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다는 말이다.¹²⁾ 이것은 二程과 주희를 대표로 性理를 숭상하고 도학으로 문학을 통제하려는 宋代의 도학자들에게 이어졌지만, 조선시대 퇴계 이황에게 와서는 사물을 관찰하면서 심성을 수양하고 다시 수양된 심성을 詩로 드러낸 詩言志로 변모되었다.¹³⁾ 이렇게 性理學과 詩學을 겸비한 문학관을 지닌 퇴계의 의식은 다음의 글에서 잘 나타난다. 心行이 바르게 되어야 문학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月川 趙穆의 질문에 대해서

10) 『皇極經世』 「觀世」 권11, “夫所以謂之觀物者 非以目觀之也 非觀之以目 而觀之以心也 非觀之以心 而觀之以理也 天下之物 莫不有理焉 莫不有性焉 莫不有命焉.”

11) 『詩經』大雅 文王 「旱麓」, “鳶飛戾天 魚躍于淵.”

12) 이종묵,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2002. 115면 참조

13) 전계서. 113면

문학을 어찌 가히 소홀히 여길 수 있겠는가 글을 배우는 것은 마음을 바로 잡기 위함이니 이 또한 『論語』 首篇 註에서 朱夫子가 아우나 자식된 직분을 논한 뜻과 같은 것이다.¹⁴⁾

라고 하였다. 퇴계는 詩와 文을 배우는 목적이 性情함양에 있다고 하면서 문학과 도학은 모두 중요하다고 보고 문학을 개인적인 性情을 바르게 이끌고 사회와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효용론적인 수단으로 보았다. 그러한 퇴계의 문학관이 잘 나타난 글이 바로 「陶山十二曲跋」이다.

…오직 근세에 李鼈의 「六歌」란 것이 세상에 널리 전해지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것 「翰林別曲」보다 좋다고는 하나 또한 세상을 놀리는 不恭스런 뜻이 있고 溫柔敦厚한 실속이 적은 것이 애석하도다. … 그러므로 일찍이 李氏의 노래를 간략히 모방해 지어서 「陶山六曲」을 만든 것이 둘이니, 그 하나는 뜻을 말한 것이요, 다른 하나는 학문을 말한 것으로, 아이들로 하여금 아침·저녁으로 익혀 노래하게 하고 의자에 기대어 듣게 하며, 또한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노래하며 스스로 춤추고 뛰게 하고자 함이거늘, 행여 비루한 마음을 씻어내고 감발되고 녹아 소통되게 한다면, 노래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유익하게 됨이 없지 않을 것이다.¹⁵⁾

세상에 전해지고 있는 한림별곡이나 六歌는 단지 쾌락만을 추구하여 사람들이 배우기에 너무 음탕하고 불공해서 교육적이지 못하다고 했다. 溫柔敦厚를 내세워

14) 『退溪全書』 下 「言行錄」 권2 「類編」, “文學豈可忽哉 學文所以正心也 是亦論語首篇註 朱夫子論弟子職之意也.”

15) 『退溪先生文集』 권43 〈陶山十二曲跋〉, “…惟近世有李鼈六歌者 世所盛傳 猶爲彼善於此 亦惜乎其猶玩世不恭之意 而少溫柔敦厚之實也…故賞略倣李歌而作 爲陶山六曲者二焉 其一焉志其二焉學 欲使兒輩朝夕習而歌之 憑几而聽之 亦令兒輩自歌而自舞蹈之 庶幾可以蕩滌鄙吝 感發融通 而歌者與聽者 不能無交有益焉.”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으로 삼은 퇴계는 학문하는 즐거움도 깨닫게 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루한 마음을 씻어내어 性情을 순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몸소 「陶山十二曲跋」을 지어서 배우는 아이에게 하여금 날마다 익혀 부르게 했다. 형식적 부화함보다는 글 속에 道를 담아 개인과 사회를 모두 교화하는데 一助해야 한다는 문학론은 퇴계가 토대를 만들고 이론으로 체계화시키면서 16C 사림과 문학론으로 완성되었다.

16C 사림과 문학론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한 다른 한 사람은 栗谷 李珣인데, 율곡은 가장 높은 詩品으로 ‘沖澹蕭散’을 꼽았고,¹⁶⁾ 두 번째 높은 시의 경지를 ‘조용히 스스로 얻는 것이니 흥을 붙인데서 나온 것이지 사색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¹⁷⁾라고 하였다. 그는 천연이나 자연에 대해서 性情을 자연스럽게 읊조리는 詩를 매우 높게 평가했는데, 그의 이러한 觀點은 성리학적 문학관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觀物論的 觀點에서 벗어난 唐詩的 詩觀이기도 하다.

한편 詩作에 있어서도 16C는 큰 변혁의 시대이다. 형식보다는 가치 있는 내용을 중시한 16C 문학관을 기반으로 하여 16C 후반에는 唐詩風의 作詩 경향이 생겨났는데, 규범을 중시한 思辨的이고 主理的인 宋代의 詩風은 李達·白光勳·崔慶昌 등의 三唐詩人에 이르러서 主情的 唐詩로 그 경향이 바뀌었다. 이와 같은 변화 양상으로 선조대를 전후해서 唐詩風에 기반을 둔 창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그러한 평가는

우리 나라의 시는 宣祖代에 이르러 크게 갖추어 졌는데, 盧蘇齋가 배운 杜甫의 시법은 黃芝川에 이르러 크게 일어났고, 崔白이 唐詩를 배우자 李益之가 그 흐름을 闡明하였다. 내 죽은 둘째 형은 太白의 詩風과 같았고 누이의 시는 흡사 盛唐風에 들어간 듯하다. 그 후 權汝章이 늦게나마 前賢을 힘써 좇았는데

16) 『栗谷全書』 권13 「精言妙選序」, “以沖澹蕭散爲首”

17) 『栗谷全書』 권4 「精言妙選總敍」 「拾遺」, “從容自得 出於寓興 非思索可到.”

데 容齋와 어깨를 나란히 견주며 따랐으니 가상하다.¹⁸⁾

라는 말했던 許筠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16C 唐詩 詩壇에 대한 비평은 17C 시화비평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들은 唐詩경향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淸’의 풍격과 관련하여 평가하였고, 이러한 ‘淸’의 풍격이 拔俗·脫俗의 기운이나 강건한 기상이 함유될 때 비로소 盛唐風의 경지를 여는 미감이 된다고 하였다.¹⁹⁾ 許筠은 가장 바람직한 시의 풍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시의 이치는 詳盡·婉曲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은 다해도 뜻이 계속되는데 있다. 가까운 것을 가리키면서도 흥취는 아득하여 이치의 노선에 빠지지 않고 말의 통발에 빠지지 않아야 가장 좋은 시인데 당나라의 시가 왕왕 그러하였다.²⁰⁾

말은 다해도 의미는 곱씹어야 비로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그의 관점은 이치로 시를 짓기를 반대하고 흥취를 핵심적 관점으로 삼은 엄우의 시론과 흡사하다. 허균 또한 시는 이치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함축적인 표현을 통해서 여운을 주는 직관적이며 자연스러운 감흥을 중시한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16C는 성리학적 원류를 통해 토대를 마련한 퇴계 문학론을 바탕으로 자연을 단지 美的인 형상물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心性을 닦는 대

18) 『惺叟詩話』, “我朝詩 至宣廟朝 大備 盧蘇齋得杜法 而黃芝川大興 崔白法唐 而李益之闡其流 吾亡兄歌行似太白 姊氏詩恰入盛唐 其後權汝章晚出力追前賢 可與容齋相肩隨之 猗歟 盛哉.”

19) 조용희, 『조선 중기 한시 비평론』, 한국문화사, 2003. 162면

20) 『惺所覆瓿藁』 권4 「宋五家詩鈔序」, “詩之理不在於詳盡婉曲 而在於辭絕意續 指近趣遠 不涉理路 不落言筌 爲最上乘 唐人之詩 往往近之矣.”

상으로 파악하고 그 이치를 글로 표현하는 文以載道的 문학관이 형성되었다. 또, 16C 후반에는 시 속에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과 흥취가 平淡하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唐詩的 詩風이 성행하기 시작하였다.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시한 16C 문학과 자연스러운 감흥을 중시하는 시론은 조선 후기 시론을 연 許筠·李睟光 등에 이르러서는 性情의 성리학적 개념보다 天機라는 감정의 자연스러운 유출이 중요하다는 쪽으로 재정립되었다.²¹⁾

결국 종적으로는 퇴계의 문인이며 횡적으로는 사림과 문인이었던 서애가 16C 사림과 문학과 더불어 唐詩的 詩風의 경향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비롯됐다고 하겠다.

2. 生涯와 交遊關係

1) 生涯

西厓 柳成龍은 1542년(중종37) 10월에 후일 황해도 관찰사를 지낸 先考인 立巖 柳仲郢과 어머니 안동 김씨의 둘째 아들로 義城縣 沙村里 외가에서 태어났는데, 본가는 安東府 豊山縣 河回里이다. 본관은 豊山이고, 字는 而見, 號는 西厓·雲巖이며, 1607년 66세를 일기로 沒하였다.

16세(1558년, 명종12)에 鄉試에 처음으로 합격하고 관료로서 첫발을 내딛는다. 어려서 총명과 예지가 남달리 뛰어났고 일찍부터 學問에 힘썼는데, 21세가 되던 해 9월에는 도산서원으로 退溪 李滉을 찾아가 『近思錄』 전수 받으며 師事하였고, 金誠一, 趙穆 등과 교우관계를 맺음으로서 후일에는 退溪를 宗主로 하는 영남학

21) 이종묵,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2002. 119면~122면 참조

과의 正脈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學脈의 관계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性理에 관한 학문에 전념했고 실천적인 것을 탐구하여 聖賢을 지표로 삼았던 서애는 성리학자로서의 면모와 사상을 지니게 된다. 退溪는 西厓를 한 번 보고 기이하게 여겨, ‘이 사람은 하늘이 낳은 인물로 장차 반드시 나라에 크게 쓰일 것이다.’²²⁾라고 찬탄하였다고 하고, 또 퇴계 선생이 남에게 ‘而見은 빠른 수레가 길을 나선 듯 하니 그 사람 형제의 취향이 가상하다.’²³⁾라고 평했다는 기록을 보면, 퇴계 문하로서 학업과 재능에 있어서 보여준 남다른 면모가 퇴계로부터 일찍부터 인정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35세(1576년, 선조9)에는 고향에 내려와 遠志精舍를 세웠는데, 이 원지정사는 서애가 1573년 부친상을 당하여 執喪한 후에 조정의 부름을 告辭하고 은거할 때인 1576년에 완성한 처소이다. 서애는 원지정사를 짓고 1578년에 ‘記’를 지었는데 “淵明의 詩에 ‘마음이 세속과 머니 사는 곳이 절로 한가롭다’ 하였으니,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 누구와 함께 돌아왔겠는가 이로써 記를 짓는다.”²⁴⁾라는 구절에서 보면 젊은 시절부터 隱逸하여 소원하던 학업에 힘쓰고자 했던 處士적인 기질도 함께 지닌 인물이었다고 하겠다. 38세에는 副提學으로 陞任하였는데, 이 동안에 西厓는 經筵 講官 가운데서 최고라는 評을 들었고, 곧 同副承旨로 옮겨 더욱 왕을 가까이 모시면서 湖堂(讀書堂)에서 賜暇讀書의 영예도 누렸다.

43세에는 그 후 禮曹判書로 知經筵·春秋館事를 겸직하기에 이르자, 이와 같은 벼슬의 超陞에 대해서 그 자신은 진심으로 이를 부당하다고 하고 여러 번 사퇴를 간청하였다. 그러나 왕은 ‘옛날에 임금은 신하를 대하면서 신하로 대우한 경우도 있었고 벗으로 대우한 경우도 있었고 스승으로 대우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의리가 후세에 전해오진 않지만 卿은 10년 동안 經幄에 있으면서 완전한 덕을

22) 『陶山及門賢錄』卷3 葉21 柳成龍, 先生一見異之曰 “此子天所生也 必成大儒.”

23) 『西厓集』 「年譜」, “而見逸駕啓途 其人兄弟趣向甚嘉.”

24) 『西厓集』 권17 「記」 〈遠志精舍記〉, “淵明詩曰 心遠地自偏 微斯人 吾誰與歸 是爲記.”

갖추어 하자가 전혀 없었으니, 임금과 신하의 義가 있다고는 하지만 정분은 친구와 같다.’²⁵⁾고 하면서 끝내 윤택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록을 보면 官人으로서 지닌 뛰어난 역량과 학덕을 宣祖가 인정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직 생활에서도 서애는 늘 處士이고자 했던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45세가 되던 해 촌락과 더욱 멀리 떨어져 그윽한 멋을 느낄 수 있는 玉淵書堂을 짓는다. 이 때 서애는 창원부사로서 울곡 이이를 탄핵했다가 함경남도 甲山으로 유배되었던 친구 許筭을 위해 영의정 朴淳에게 ‘죄에 비하여 무거운 벌을 받고 있다’²⁶⁾고 했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선조에게 상소를 올려 풀려나도록 돕기도 하기도 했다. 48세에는 鄭汝立의 역모로 己丑獄事가 일어나 스스로 물러나 귀향하고, 精舍에 머무르면서 詩文활동을 했다. 다음해에는 문학적으로 교유했던 許筭이 1574년에 명나라에 가서 그곳의 문물을 보고 지은 <許荷谷朝天記>의 序를 쓰기도 하였고, 친구 許筭의 아우인 筠이 찾아와 누이 許蘭雪軒의 『蘭雪軒藁』를 가지고 왔을 때는 跋文을 써주기도 하였다.

잠시 복직했던 서애는 57세에 北人의 탄핵을 받아서 10월에 부원군으로 물러난다. 하지만 당쟁은 더욱 격화되었고, 12월에는 관직을 削奪당하는 悲運을 겪기도 하였다. 허균이 宣祖를 보좌하던 신하 중 한 사람이었던 서애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선조가 專權을 위임할 정도의 재능이 있는 儒者였지만 끝내 그 재능을 펴지 못한 것은 그의 재능이 미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던 것²⁷⁾을 보면 당쟁과 왜란 등의 사회적 혼란 속에서 활동했

25) 『宣祖大王修正實錄』 권18 甲申年 九月朔甲戌, “古人之君於其臣 有臣之者 有友之者 有師之者 此義雖不傳於後世 然卿十載經幄 一德無瑕 義雖君臣 情有朋友.”

26) 『西厓集』 「年譜」 神宗皇帝萬曆 11년 癸未, “今許筭等三人罪輕罰重朝野危懼 惟公思所以解之.”

27) 『惺所覆瓿藁』 권11 文部8 「書」 <政論>, “(中略) 噫先王之政可謂明矣 當時補佐之臣 不爲不多其眷而相信者李珥也 其任專而責以事者柳成龍也 二臣者亦可謂儒者而材臣也 其委任責成之意非不至矣而卒莫之展者 非其材不逮也 物有以害之也…”

던 서애가 느끼는 인간적인 고뇌 그리고 處士가 되기를 바랬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인간심리였다고 하겠다.

59세에 11월에 직첩이 還給되고 이후 여러 번 召命이 내렸으나 평생을 마치도록 응하지 않았다. 30여 년 동안 朝廷에서 領相等 높은 벼슬자리에 줄곧 있던 그였지만 일단 宦路에서 물러난 뒤에는 다시는 조정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 隱居했다. 63세에는 扈聖功臣이 되고 다시 풍원 부원군에 봉해졌지만 상소하여 致仕하기를 빌었으며 벼슬살이로 성현공부에 힘쓰려던 初志를 빼앗겼음을 한탄하면서, 세 가지 恨인 ‘聖君과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지 못한 것이 첫째 恨이요, 벼슬이 크게 분수에 넘쳤지만 일찍이 물러나지 못한 것이 두 번째 恨이요, 망령되어 학문하려는 뜻은 있었으나 이루지 못한 것이 세 번째 恨이다.’²⁸⁾을 말하기도 하였다. 서애는 벼슬에서 물러나 있으면서 遠志精舍와 玉淵書堂 등 조용한 藏修處에서 研鑽과 養德에 정진하였고, 때로는 낙동강 岸의 絶崖에서 소요하면서 晩年 10여 년을 조용한 田園에서 學人生活을 하였다. 이 때 『退溪年譜』를 찬술했으며, 倭亂에 대한 반성과 정리인 『懲忿錄』과 『軍門謄錄』·『愼終錄』·『永慕錄』·『觀化錄』 등 많은 논저를 지었다. 하지만 병이 더해지면서 1607년 5월에 66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다.

2) 交遊關係

서애의 교유관계는 퇴계학파의 맥락과 16C 후반 유행했던 唐詩風 作詩 경향 아래에서 교유했던 인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스승인 退溪 李滉(1501~1570), 同學인 鶴峰 金誠一(1538~1593), 荷谷 許筠(1551~1588)·蛟

28) 『西厓集』 「別集」 권4 「雜著」 〈三恨〉, “未報君親之恩一恨也 爵位太濫而不能早退二恨也 妄有學道之志而無成三恨也.”

山 許筠(1569~1618)형제 그리고 서애의 문하였던 愚伏 鄭經世(1563~1633) 등이 있다.

스승인 퇴계와의 인연은 서애 나이 21세 때인 1562년에 형 謙菴 柳雲龍과 함께 陶山으로 가서 퇴계에게 직접 『近思錄』 등의 유학서적을 배운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후로도 계속 퇴계의 門下에서 성리학의 사상과 시문학을 체득해나갔다. 『大學』을 중요시하면서 그에 대한 생각을 詩나 文으로 지은 것은 『大學』 『小學』 『心學圖說』 등을 중시한 스승의 영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²⁹⁾ 또, 말년에 玉淵書堂 등에서 거처하면서 찬술한 『退溪年譜』에 대해서 서애는 〈退溪先生年譜跋〉³⁰⁾을 짓기도 했다. 서애는 퇴계의 문하로서 스승에게 받은 성리사상 및 학풍을 체계화시켜 후대로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사상은 문학관으로 이어져 文以載道的인 문학관을 이루게 되었다.

퇴계학파는 月川·西厓·鶴峰·寒岡 등 4대 학맥으로 나뉘는데, 그 중 학봉은 퇴계문하 중에서도 同學의 관계로써 상대방을 서로 존중하면서 공부했던 사이이다. 학봉은 서애를 자신의 師表라고 하고 서애는 학봉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데,³¹⁾ 각자 조금씩은 다르지만 퇴계를 뿌리로 한 퇴계학맥을 이루게 된 것도 이러한 同學과의 학문적인 교류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스승에게서 배우고 同學과의 교류로 견고하게 짜여진 그의 사상과 문학관은 제자들에게 이어져 17C 전반 영남 출신 남인으로 퇴계학파를 대표하는 위치에 선 우복 정경세가 그 뒤를 잇게 되었다. 정경세는 58세에 낙향하여 遠志精舍나 玉淵

29) 『西厓集』 권2 「詩」에 〈晦庵八大字〉, 〈讀大學有感十首〉 그리고 권15 「雜著」에 〈大學章句補遺〉, 〈大學〉, 〈中庸言孝〉 등 다수의 글이 실려있다.

30) 『西厓集』 권18 「跋」에 실려있다.

31) 『西厓集』 「年譜」世宗皇帝 嘉靖 41年 壬戌 9月, “鶴峰謂先生曰 吾輩從老先生久矣 未嘗有一言將許 公一見先生而先生卽曰 此人天所生也 他日所樹立必大公何以得此於師門乎 又嘗語人曰 西厓我之師表 先生亦嘗稱鶴峰 以爲吾所不及 其交相推重如此.”

書堂에 머무는 서애와 『朱子學節要』에 대해서 논의를 할 정도로 깊이 교유한 인물이다.

穆陵盛世라고 일컬어지던 16C 후반 唐詩風으로의 변화 속에 문학적인 관계로서 교유한 대표적인 인물은 許筠과 許筠이다. 서애는 허씨집안의 문인들과 깊은 교유를 가졌는데 울곡을 탄핵했다가 甲山을 유배되었던 허봉을 위해서 상소를 올려 풀려나도록 했을 만큼 둘의 교분은 두터웠다. 귀양에서 풀려난 허봉이 강원도를 유람하다가 들른 금강산에서 친구인 서애에게 보낸 〈遊九龍淵回寄柳西厓〉詩³²⁾에서 서애를 그리워하는 구절이라던가, 〈謝西厓惠墨扇豹皮三首〉詩³³⁾중 1首와 2首에서 가난한 자신을 찾아 준 서애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 것에서 그들의 남다른 우정을 알 수 있다. 서애는 허균과도 일정한 교유관계를 가졌다. 허균이 서애에게 문장을 배웠다는 것은 여러 기록에서 나오는데, 『許蘭雪軒一家의 學問과 文學』에서는 『蘭雪軒集』序文도 서애 류성룡이 撰한 것은筠이 서애에게 문장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했다.³⁴⁾ 허균은 “문학이란 비록 小技라고들 하지만 학력이 없고 식견이 없으며 功程이 없다면 그 극치에 도달할 수 없으며 이르는 바가 비록 크고 작음, 높고 낮음이 있다고 해도 그 묘한데 있어서는 한가지이다.”³⁵⁾ 라고 했는데, 1604년에 허균은 서애에게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1591년에 받은 누이 詩集의 序文을 왜란 때 분실하고 후에 어떤 사람이 序文을 써 가지고 왔지

32) 『荷谷集』 「詩鈔」 7, 懸蘿暗鎖九龍淵 鶴背冷然縱飛鞚 紫簫聲裏宿雲低 白玉峰頭寒月涌
歸來恹恹鄂夢 不覺朝暉照高棟 悵悵江南無上過 此時此景誰人共

33) 『荷谷集』 「詩鈔」 13

一首 - 日暮窮愁北海濱 草玄門下索居貧 誰收斗帳宵分燄 來作文房席上珍 磨頂尙存兼愛意 漆身還愧二心人 憐君持贈偏悵悵 要我從今混世塵

二首 - 故人書信到天涯 滿袖清風在竹枝 惠過郴州雙紙筆 價增安石一滿葵 恩情不爲冰霜晚 彩色寧同草木衰 且待明年揮汗日 篋中猶有策勳時

34) 이숙희, 『허난설 현시문』, 대학사, 1995. 28면 재인용

35) 『惺所覆瓿藁』 권10 문부7 「書」 〈答李生書〉, “文章雖曰 小技無學力無識見無功 不可臻其極 所臻雖有大小高下 及其妙得一也.”

만 믿을 수 없어 다시 한번 잘못된 곳을 찾아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였고, 바로 다음해인 1605년에는 家兄의 시문의 약간을 모아 간행하였으니 서문을 써 달라고 간청하기도 한다.³⁶⁾ 이러한 기록에서 볼 때 허균이 서애에게 문장을 배운 후 지속적으로 서애에게 문장을 부탁했던 것으로 보이며, 상당히 깊은 교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서애는 퇴계의 문인으로 퇴계에게 성리학을 체득하여 ‘文以載道’의 전형적인 사림과 문학관을 확립하고, 학봉 김성일과 우복 정경세 등과의 교유를 통하여 성리학을 견고하게 확립해 나갔다. 또, 唐詩風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던 16C 후반 유희춘의 문인이며 삼당시인 이달과 교유했다는 허봉과는 깊은 우정을 나누었고 盛唐風의 詩에 대해서 高評을 내렸던 17C 대표적 시화비평론자인 허균에게는 문장을 가르쳤으며 『蘭雪軒集』의 서문을 써주기도 했다. 이러한 교유관계를 통해서 볼 때 서애는 성리학 사상을 기본으로 하되 16C 후반 唐詩風의 詩觀도 함께 지녔던 문인이었다고 하겠다.

36) 『惺所覆瓿藁』 권19 문부16 「雜記」 〈上西厓相 甲辰八月〉, “辛卯歲 辱製亡姊詩集序文 以惠 筠不能誦 致失倭亂日 其不敏之誅 焉可追乎 近有人以序文見示者 看來如隔世事 不能辨眞贗 謹錄呈記室 幸惟老師 証其訛謬何如 切欲首簡 登之於梓耳…”
〈又 乙巳二月〉, “家兄詩文 散失殆盡 僅聚若干篇 俾綉于梓 今以淨本呈上 幸賜一覽 爲之敘其首十分切祈 知家兄最深 莫老師若也 世間敘其文者 捨老師伊誰…”

Ⅲ. 文學觀

1. 詩敎的 觀點

오랜 세월동안 시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는데, 시에 대한 여러 가지 전통적 견해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자로부터 시작된 詩敎的인 관점이다. 공자는 《詩經》의 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언급했는데, 그 중에서도 “詩經 三百篇을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에 邪慝함이 없다.”³⁷⁾, “시를 배우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 없다.”³⁸⁾, “詩에서 일어나고, 禮에서 서고, 樂에서 이룬다.”³⁹⁾에서는 시의 도덕적 영향, 정서의 진작에 대한 공자의 교육적 가치를 엿볼 수 있다. 詩歌의 사회적 작용을 설명하는 공자의 견해는 아래의 글에 잘 나타난다.

詩는 감흥을 자아낼 수 있고, 보게 할 수 있고, 무리 짓게 할 수 있고, 원망하게 할 수 있으며, 가까이는 어머니를 섬기게 하고, 멀리는 임금을 섬기게 할 수 있으며, 鳥獸와 草木의 이름을 많이 알게도 한다.⁴⁰⁾

여기서 興은 시경시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하게 하고 계발시켜서 시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힘을 지녔다는 것을 의미하고, 觀은 시를 통해서 인간이 풍속

37) 『論語』 「爲政」, “詩三百 一言而蔽之 曰思無邪.”

38) 『論語』 「季氏」, “不學詩 無以言.”

39) 『論語』 「泰伯」, “興於詩 立於禮 成於樂.”

40) 『論語』 「陽貨」, “詩可以興可以觀可以群可以怨 邇之事父遠之事君 多識於鳥獸草木之名.”

의 성쇠와 정치의 득실을 살펴 알 수 있게 됨을 말하는 것이며, 群은 시를 통해서 서로 모여 절차탁마하고 상호 계발하여 화락하게 지낼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怨은 被政者 입장에서 失政에 대하여 爲政者의 분노를 사지 않고 비판 풍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事父’, ‘事君’은 가깝게는 修身·齊家를 멀게는 治國·平天下 하는 것을 의미하니, 시를 통해 유교적 통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鳥獸와 草木의 이름을 알 수 있다’는 시를 통해서 기본적인 지식도 얻을 수도 있다 말이다. 이렇게 美感작용, 인식작용, 교육작용, 비판작용을 갖춘 興觀怨諷은 修辭의 전형, 지식의 寶庫⁴¹⁾이며 최종목표로 하는 것은 시의 사회적 작용이다.⁴²⁾ 이러한 의미로 봤을 때 시는 단지 자신의 감정을 읊어내는 것에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정서와 행동에 바람직한 영향을 끼쳐서 올바른 덕성을 함양하고 사회의 질서를 확립하는데 一助해야 하며, 禮樂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어 中和의 美를 드러낼 때 비로소 참된 가치를 지닌 시가 다고 하겠으니 이것이 바로 시교적 관점이다. 이와 같은 관점은 시교의 목적이 상하 규범질서를 확립하는데 있다는 <毛詩序>에서도 나타나는데, “득실을 바로 잡고, 천지를 움직이며, 귀신을 감동시키는 것이 시보다 더 한 것이 없다. 先王이 이로써 夫婦의 관계를 바로잡고, 孝敬을 이루고, 인륜을 두텁게 하고, 교화를 아름답게 하며, 풍속을 고친다.”⁴³⁾와 “윗사람은 ‘風’으로써 아랫사람을 교화하고 아랫사람은 ‘風’으로서 윗사람을 풍자한다. 문사 위주로 넌지시 간하니 말하는 자는 죄가 없고, 듣는 자는 족히 경계할 수 있다.”⁴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41) 劉若愚, 『中國詩學』, 同和出版公社, 1984. 97면

42) 李炳漢, 『중국 고전 시학의 이해』, 문학과 지성사, 2000. 22면 참조
車柱環, 『中國詩論』, 서울대학교출판사, 1994. 2면~3면 참조

43) <毛詩序> “政得失動天地感鬼神莫近於詩 先王以是經夫婦成孝敬厚人倫美教化移風俗.”

44) <毛詩序> “上以風化下 下以風刺上 主文而譎諫 言之者無罪 聞之者足以戒.”

이러한 시교적 관점은 근본적으로 문장은 겉으로 꾸미는 것보다 性情을 함양하고 궁극적으로는 참된 삶의 가치로써 사회를 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학론이라고 하겠다.

조선시대에서는 16C 집권세력으로 등장하게 된 사림파가 이러한 문학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李滉으로부터 그 체계를 잡아가기 시작한 사림파 문인들은 조선 건국초기 국가 형성기에 수사적 기교에 치중하여 건국에 대한 頌祝 및 交隣의 효용성을 추구한 훈구 사장파의 문학관에 대항하여, 문학이란 부화한 형식적인 면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 바른 성정 및 인성함양을 근본으로 하여 심성을 바르게 기르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C 사림파 문인의 한 사람이자 퇴계의 문인이었던 서애는 <詩教說> 45)에서 시교에 대한 공자의 생각을 재확인하면서 한 층 구체화된 설명을 덧붙였다. 시는 정서순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가지는 동시에 언어생활의 기본적 수단이였음을 이해하였고, 밖으로 인간 윤리적인 면에서는 어버이와 임금을 섬기는 성정도야의 수단이 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절대적인 가치척도임을 인정하였다. 서애는 어떤 이가 ‘시는 원망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원망은 군자의 일이 아닌데도 性情의 올바름이라 볼 수 있겠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

대저 사람이 사람으로 되는 까닭은 단지 부자, 군신, 부부, 형제, 붕우가 서로 친애하는 사이에 있으니, 측은히 여기고 忠厚한 생각이 서로 통하여 두루 흘러 마치 초목이 생기가 있는 것과 같다. 간혹 불행하게도 틈이 생겨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뜻을 얻지 못하고, 신하가 임금에게 뜻을 얻지 못하며, 지어미가 지아버에게 뜻을 얻지 못하고, 형과 아우가 서로 기뻐하지 않으며, 벗이 서로 뜻이 맞지 않는다면, 그 애통해 하고 슬퍼하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히 할 수

45) 『西厓集』 권15 「雜著」 <詩教說>, “孔子云 興於詩 又曰 不學詩無以言 又曰 詩 可以觀 可以群 可以怨 邇之事父 遠之事君 聖人之重詩教也 如此.”

없어서 한숨쉬며 탄식을 하는 것은 또한 사람의 情이 반드시 이르는 것이고, 하늘의 이치가 마땅히 그러한 것이다. 만약 돌이켜 생각해 보지도 않고서, ‘저는 저이고, 나는 나다’며 편안히 여긴다면, 이것은 至親이 변하여 거리의 사람으로 되어 사람의 도리가 끊어지게 될 터이니, 어찌 사람의 性情이겠는가?...그러나 원망하여 순리를 지나치게 되면 忿恨에 이르게 되니 곧 어지럽게 되는 것이다. 오직 시의 말은 溫柔敦厚하여 스스로 그 마음의 지극함을 다할 뿐 언성을 높혀서 지나치게 심한 말을 하지 않는 까닭에 성인께서 이를 귀히 여겨 원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⁴⁶⁾

라고 답하였다. 이는 ‘興觀群怨’ 중 ‘怨’에 대해 공자가 제시한 막연한 개념을 구체화하여 설명한 것이다. 인간 사회의 기본적 관계인 父子, 君臣, 夫婦, 長幼, 朋友의 관계에서 불화가 생겼을 때 한숨쉬고 탄식하며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만약 원망하는 감정이 없다면 남과 같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怨은 성정 속의 정상적인 감정임을 언급했다. 여기서의 怨은 탄식 이상의 격한 감정이 아니라 正度를 벗어나지 않는 溫柔敦厚함이 있기 때문에 원망은 인정상 당연한 것이니 이로 인해서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또,

만약 詩道의 온전함을 논한다면, 반드시 聖君이 위에 있어 五倫의 道를 가지고 그 표준을 세워 내 몸으로 말미암아 집과 나라와 천하에까지 미루어서 천하의 父子, 君臣, 夫婦, 兄弟, 朋友된 자로 하여금 모두 그 이치를 얻게 하여 그 은택이 천하에 미쳐 한 사람도 얻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교화가 천

46) 전계서. “夫人之所以爲人者 只在於父子君臣夫婦兄弟朋友 相親相愛之間 而惻隱忠厚之意 融貫周流 如草木之有生意 如或不幸而有所間隔 子不得於父 臣不得於君 婦不得於夫 兄弟不相悅 朋友不相得 則其所以哀痛傷悼 不能自安於心而發之咨嗟歎息者 其亦人情之所必至而天理之所當然 若無顧念而乃曰 彼爲彼 我爲我 愒然而已 則是 至親 化爲路人而人道 息矣 豈人之性情乎...然怨而過乎天 則至於忿恨 則亂 惟詩之言 溫柔敦厚 自盡乎其心之至誠而無激發過甚之辭 故聖人貴之 謂可以怨.”

하에 행하여져 한 일도 바르지 않음이 없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기 분수에 맞는 바람을 얻으면 감화되어 物我와 차별하지 않고 남과 다투지도 않으며 화락하여 환하게 되어 칭송하는 소리가 일어나고 상서로움이 응하여 이르러 오는 것은 마치 「麟趾」가 「關雎」에 응하고 「騶虞」가 「鵲巢」에 응하게 된 뒤라야 바야흐로 시의 가르침이 온전하게 되는 것과 같다.⁴⁷⁾

라고 한 위 단락은 시를 통해서 詩敎가 온전하게 전해진다면 바람직한 형태로 유교적 상하질서가 확립되고 父子, 君臣, 夫婦, 長幼, 朋友가 각기 자신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게 되어서 이상적 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 대목이다. 곧, 가까이 있는 아버이 섬기고, 멀리 있는 임금을 섬긴다는 것은 〈毛詩序〉에서 얘기한 “부부의 관계를 바로 잡고 孝敬을 이루고 인륜을 두텁게 하고 교화를 아름답게 하며, 풍속을 고친다.”⁴⁸⁾는 부분과 같다. 이러한 시교적 관점을 중시한 서애의 견해는 주자학적 전통을 잇는 16C의 전형적인 사림과 문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詩經』에서 시작된 ‘鳶飛魚躍’의 의미 또한 시교적 입장의 대표적 의식인데, 서애의 다음 글 <鳶飛魚躍>에서도 잘 드러난다.

‘하늘에 솔개가 날고 물 속에 고기가 뛰논다.’ 한테 대해 子思는 ‘도리는 없는 곳이 없다고 말하였다.’ 라고 하였으니, 곧 시경에서 말한 ‘사물이 있는 곳에 법칙이 있다.’가 이것이다. 그러므로 부모 자식에 있어서는 부모와 자식의 도리가 있고, 임금과 신하에 있어서는 임금과 신하의 도리가 있고, 부부간이나 형제간이나 붕우간이나 모든 사물이 다 그렇지 않음이 없는 것이니,

47) 전계서. “若論詩道之全 則必也聖君在上 以五倫之道 建其有極 由身而家而國而天下 使天下之爲父子君臣夫婦兄弟朋友 待得其理 澤被天下而無一夫之不獲 化行天下而無一事之不正 人人各得分願 薰爲太和 熙熙皞皞而頌聲 作瑞應至 如麟趾之應關雎 騶虞之應鵲巢 然後 方爲詩敎之全.”

48) 앞의 註 43) 참조.

이것은 다 하늘이 명한 것이다. 사람은 다만 경계하고 조심하고 홀로일 때 삼가서, 매일 일이 있을 때는 그 하는 일을 함부로 하지 말뿐이니, 어찌 털끝만 큼이라도 사사로운 뜻을 용납해서 하는 일에 거짓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곧 孟子의 ‘반드시 그것을 일삼아야 한다.’는 뜻이며, 그리고 程子가 ‘매우 긴요하게 사람을 위한 의미가 있다.’ 하였음을 대개 알 수 있다.⁴⁹⁾

서애는 위의 글을 통해서 ‘鳶飛魚躍’에 대한 여러 賢人들의 문장을 인용하여 설명했다. 각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들에는 모든 이치가 담겨있는데, 이는 사물 뿐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사물이 있는 모든 곳에 도가 있으니 문학적 소재를 도덕적인 것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이치를 찾고 이러한 이치를 문장으로 표현하여 교훈을 주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식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생각은 또한 퇴계가 “건실한 도의 오묘한 작용이 상하에 소상하게 드러나서 흘러 움직여 충만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주자가 이르기를 도의 流行이 천지간에 나타남이 없는 곳이 없다. 그것이 위에 있으면 솔개가 하늘을 날고 아래에 있으면 고기가 연못에서 뛰는 것이다.”⁵⁰⁾라고 말한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모든 사물에 담긴 이치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다는 서애의 이와 같은 생각은 글 속에 담겨진 뜻을 읽고자 하는 ‘詩言志’의 의미로 본다면 글은 단지 형식적 형태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내용으로 파악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내용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그의 생각은 수사적인 부화함으로 글을 꾸미기

49) 『西厓集』 권15 「雜著」, “鳶飛魚躍 子思說道理無所不在 卽詩所云 有物有則者是也 故在父子則有父子之道 在君臣則有君臣之道 以至夫婦也兄弟朋友也 萬事萬物 無不皆然 此皆天之所命人但戒懼謹獨 日有所事 而無忘其所爲事而已 夫豈容一毫私意 有所作爲 假說於其間哉 此卽孟子必有事焉之意 而程子活潑潑喫緊 爲人之意 盖可知也.”

50) 『退溪全書』 言行錄 권4 「理氣說」, “...此則實道之妙用 上下昭著 流動充滿之義 故朱子曰 道之流行見於天地之間 無所不在 在上則鳶之飛而戾于天者此也 在下則魚之躍而出於淵者此也.”

보다는 내용에 있어 올바른 가치를 드러내어 널리 펼치고자 하는 詩敎의 측면에서도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詩經』에서부터 나타난 공자의 시교적 관점은 이후 모든 시대를 걸쳐 문학론의 기저를 이루었다. 내외적인 사회혼란으로 새로운 가치를 찾게 되던 시기에 퇴계를 통해 그 형태가 완성되었던 16C 문학관 역시 참다운 문학이란 사람을 교화하여 세상을 올바르게 이끄는 것이지 아름답게 꾸며 단지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文以載道的 文學觀으로 완성된다. 당대 문인이었던 서애는 <詩敎說> 과 <鳶飛魚躍> 에서 16C 시대적 배경과의 맥락을 같이하면서 문학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2. 審美的 觀點

심미적 관점은 이치로 시를 짓는 이론에 반대하고 내재적 심미특질을 ‘시의 본뜻’으로 규정하여 하나의 이론체계로 수립된 이론이다.⁵¹⁾ 그윽하고 고요한 정신적 가치를 중시한 이 관점은 형식적 화려함에 반대하여 내재적 의미를 바탕으로 사회현실로부터 초탈하여 담박하고 아득하면서도 깊은 경지를 추구한 平淡自然을 중시한 이론이다.⁵²⁾ 이러한 심미적 관점을 하나의 이론으로 완성한 인물은 바로 宋代의 시인이자 문학비평가였던 嚴羽이다. 엄우는 시를 지을 때 시인은 坐禪하는 사람과 같이 마음의 고요한 冥想을 통해서 시속에 담긴 인생과 자연의 정신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⁵³⁾

51) 周勳初, 『중국 문학 비평사』, 이론과 실천, 1992. 46면 참조

52) 전개서. 460면~461면 참조

53) 劉若愚, 『中國詩學』, 同和出版公社, 1984. 115면 참조

시의 최고의 경지는 한 가지가 있으니 이를 入神이라고 한다. 시가 이렇게 入神하면 지극함에 도달하는 것이며, 더할 나위 없는 것이다. 오직 李白과 杜甫가 이런 경지에 들었다.⁵⁴⁾

에서 보듯이 그는 시를 짓는 것을 學問이 아닌 妙悟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송대에 지식인들 사이에서 禪家에 대한 상식적 이해가 보편화되어감에 따라 ‘以禪喻詩’의 풍조가 성행하게 되면서 완성되었다. 묘오란 본래 佛家語로 “깊은 이치는 오묘한 깨달음에 있고 오묘한 깨달음은 참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⁵⁵⁾와 같이 진리를 전수하고 깨우치는 직관적 인식을 가리킨다. 佛理를 전수하거나 깨우치는 일은 언어 문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선종의 생각이 송대의 엄우에 이르러 ‘妙悟說’로 이루어진 것이다.⁵⁶⁾ 엄우의 핵심적인 문학관은 다음 글에 잘 나타난다.

무릇 시에는 별도의 재주가 있으니 책과는 관계가 없고, 시에는 별도의 흥취가 있으니 이치와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많은 독서와 많은 궁리가 없으면 그 지극한 것을 다할 수 없다. 소위 원리에 얽매이지 않고 말의 그물에 빠지지 않는 것이 최고이다. 시라는 것은 性情을 읊는 것이다. 성당의 여러 시인들은 오직 흥취에 주력하여, 영양이 뿔을 나무에 거는 것과 같아 자취를 찾을 수 없다. 그런 까닭에 그 시의 절묘함은 투철하고 영롱하여 가까이 다가설 수가 없으며 마치 공중의 소리, 외형 속의 색깔, 물 속의 달, 거울 속의 허상과 같아서 말은 다함이 있어도 뜻은 다함이 없다.⁵⁷⁾

54) 『滄浪詩話』 「詩辨」, “詩之極致有一曰入神 詩而入神 至矣盡矣 蔑以加矣 惟李杜得之.”

55) 『涅槃無名論』, “玄道在於妙悟 妙悟在於即眞.”

56) 이병환, 『중국 고전 시학의 이해』, 문학과 지성사, 2000. 64면 참조

57) 『滄浪詩話』 「詩辨」, “夫詩有別材非關書 詩有別趣非關理也 然非多讀書多宮理則不能極其至 所謂不涉理路 不落言筌者上也 詩者吟詠性情 盛唐諸人惟在興趣 羚羊掛角無跡可求 故其妙處透徹玲瓏不可湊泊 如空中之音相中之色水中之月鏡中之象 言有盡而意無窮.”

위의 글을 통해서 엄우는 시를 표현하는 언어적 기교와 개념화를 반대하였다. 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정신을 포착하여 표현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시의 핵심은 妙悟를 통한 시인의 내면정신이 중요하지 수사적 기교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심미적 특성과 그 의미를 같이 한다고 하겠다. 결국 시란 감정의 내면세계를 默示하는 동시에 시인의 마음을 통해서 반영된 외부세계의 구체화이며, 외부 사물을 관조함으로써 순간적이고 직관적인 흥취로 깨달아야 만이 시인의 내면의식을 얻는다는 말이다.

서애는 조선시대에 있어서 형식적 부화함을 추구했던 詞章派의 문학양상에 반대하여 글 속에 사상을 담고자했던 16C 사림과 문인들과 맥락을 같이하면서도 그들과는 다른 미적인 것을 추구했다. 編著 중에서 冊名만 남고 원본은 전해지지 않는 『亂後詩稿』라는 책의 발문인 〈書亂後詩稿後〉에 보면 서애의 심미적 의식이 잘 드러난다.

대체로 시의 좋고 나쁨은 의향과 취지가 높고 낮음에 있는 것이지 말의 공교로움과 졸렬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니, 비유하건대 大羹과 玄酒가 무미한 가운데 지극한 맛을 지니고 있는 것과 같다.⁵⁸⁾

라고 한 대목에서 보면 서애 또한 시를 평가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건을 시속에 담겨있는 흥취와 시에 대한 시인의 의식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좋은 시는 大羹과 玄酒와 같이 담박하고 무미할 때만이 그 가치가 있다는 서애의 생각은 눈으로 보이는 언어적 기교에서 벗어나 詩 속의 眞意를 음미하고 내재된 정신을 잘 파악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서애의 이러한 관점은 문학이란 화려한 꾸밈보다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있어야 한다는 송대의 심미이상과 그 맥을 같

58) 『西厓集』 권15 「雜著」, “蓋詩之好否在意趣高下不在辭之工拙 譬如大羹玄酒 寓至味於無味中.”

이한다고 하겠다. 또한, 서애는 시에 관한 의식을 한 편의 글로 표현했는데 그 첫머리에서

대개 시라는 것은 맑고 심원하며 깊고 담박하여 말밖에 뜻을 부침을 귀하게 여기니 그렇지 않으면 단지 진부한 말일뿐이다.⁵⁹⁾

라는 말로 시에 관한 의미를 정의하였다. 곧이어 그러한 의식이 잘 담겨진 李白의 시를 천리만리 다하지 않는 뜻이 엿보이는 古今의 절창이라고 평하였다.⁶⁰⁾ 여기에서 말하는 ‘말 바깥에 뜻을 부침을 귀하게 여긴다.’는 말은 엄우가 『滄浪詩話』에서 말했던 ‘言有盡而意無窮’와 같다. 서애의 의식은 17C 시화 비평가들에게서도 나타나는데 허균이 “말은 끊어져도 뜻은 계속된다.”⁶¹⁾고 말하고 申欽이 “시에서는 말이 끝났어도 뜻은 다하지 않는 것을 귀중하게 여긴다.”⁶²⁾라고 말한 것과 같은 의미로써 기교와 형식에 치우쳐 표현하는 것보다 시 속에 담긴 흥취와 그로 인한 여운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것이 곧 성당시를 높이 평가하고 함축성과 妙悟를 추구했던 엄우의 관점이며 16C 후반 성행되기 시작한 唐詩風인 동시에 17C에 나타난 흥취⁶³⁾의 관점이라고 하겠다. 조선후기 대표적인 비평가 김만중은 『서포만필』⁶⁴⁾에서 당시 널리 읽히던 『지봉유설』에 비해서 시

59) 『西厓集』 권15 「雜著」 〈詩意〉, “大槩 詩當以清遠沖澹 寄意於言外爲貴 不然則只是陳腐語耳.”

60) 전개서, “古文絶句中 如李白洞庭西望楚江分 水盡南天不見雲 日落長沙秋色遠 不知何處弔湘君 眞有 千萬里不盡之意卓乎不可及.”

61) 『惺所覆瓿藁』 권4 「宋五家詩鈔序」, “辭絶意續.”

62) 『晴窓軟談』 上, “詩貴言盡而意不盡.”

63) 조유희, 『조선중기 한시 비평사』, 한국문화사, 2003. 70면~72면 참조

64) 金萬重, 『西浦漫筆』 下, “李芝峰負詞壇重望 類說二十卷 論詩者居半 而其言殊無開發人意 處柳西厓經世之文 何嘗數數於小技 而其論李白洞庭湖·劉禹錫大堤詩 見識之超卓 求之類說 不可得也 洞庭固人所共喜 若大堤則實公之獨見 亦可見才智之出人也.”

론가로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인 서애를 평가했는데, 李白 등의 시를 평가한 〈詩意〉속 서애의 견해를 ‘見識之超卓’, ‘實公之獨見’ 이라고 평가한 것을 보면⁶⁵⁾ 서애의 詩觀이 16C로서는 상당히 앞선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함축적이고 심원한 詩語를 통해서 시속에 깊고 그윽한 의미를 담고자 했던 16C 후반 唐詩風의 作詩성향은 곧 17C 전기 시화비평의 단초가 되었다.⁶⁶⁾ 하지만 그런 의식은 이미 서애에서도 나타나는데 許筠과 친구였던 서애는 그의 동생 許筠으로부터 『蘭雪軒稿』에 대한 跋文을 부탁 받고 다음과 같이 자신의 느낌을 글로 적는다.

다만 보는 바에 따라 평한다면 말을 세우고 뜻을 창조함이 허공의 꽃이나 물 속에 비친 달과 같아서 형철 영롱하여 눈여겨 볼 수가 없고, 소리가 울리는 것은 형옥과 황옥이 서로 부딪히는 것이요, 남달리 뛰어나기는 송산과 화산의 빼어남과 닮는 듯 하다. 가을 부용은 물 위에 넘실대고 봄 구름이 공중에 아롱진다. 높은 곳으로는 한나라 위나라의 諸家보다 뛰어나고 그 나머지는 盛唐의 것만 하고 그 사물을 보고 정감을 불러일으키며 시절을 염려하고 풍속을 민망하게 함에 있어서는 열사의 기풍이 있다. 한 점의 世輩血이 없어서 栢舟(시경의 편명) 東征(文選, 東征賦. 後漢 班固의 누이동생 班昭의 作)이라해도 더 낫지 못할 것이다.⁶⁷⁾

위의 글 중 ‘허공에 꽃이나 물 속에 비친 달과 같이 형철 영롱하여 눈여겨볼 수가 없고 소리가 울리는 것은 마치 형옥과 황옥이 서로 부딪히는 것 같다’ 등

65) 안대회, 『조선 후기 시화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0. 84면 참조

66) 조윤희, 『조선 중기 한시 비평론』, 한국문화사, 2003. 60면

67) 『西厓集』 권15 「雜著」 〈跋蘭雪軒集〉, “姑卽其所見而評之立言造意 如空花水月瑩澈玲瓏不可把玩 鏗鏘則珣璜相觸也 挺峭則嵩華競秀也 秋藥擢水也 春雲靄空也 高處出漢魏其餘步驟乎 盛唐至其感物興懷憂時閔俗 往往有烈士風 無一點世間輩血 栢舟東征不得專美於前矣.”

의 평가어들은 엄우가 『滄浪詩話』에서 ‘妙處가 투철 영롱하지만 다가갈 수 없는데 있으니, 마치 공중의 소리, 형상 속의 색, 물 속의 달, 거울 속의 형상과 같아서 말은 다함이 있으나 뜻은 다함이 없다.’ 68)라고 평한 것과 같다. 이 글은 허난설현의 시를 보고 시 속에 담겨진 작자의 내면 의식을 이해하고 시에서 느껴지는 심미적 형상을 글로써 평한 것으로, 형식보다는 시에 담긴 시인의 내면적 감각과 흥취를 그리고 平淡自然의 美를 중시하는 관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그의 심미적 관점이 엇보인다. 이처럼 三唐詩人 李達과는 師弟관계였던 허난설현의 글에 대해서 이러한 평가를 내릴 정도였다면 서애는 일정한 唐詩風의 詩觀도 지녔으며 그것을 중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애의 이러한 의식은 盛唐風의 詩를 중요시 한 17C 대표적 시화 비평론자였던 허균이 〈宋五家詩鈔序〉 69)에서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로써 본다면 서애는 사림과 문인의 詩敎的 觀點과 더불어 16C 유행하기 시작한 唐詩風 作詩와 일정한 맥을 유지하면서 심미이상을 통해서 시적 흥취와 여운을 중시한 審美的인 문예의식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다고 하겠다.

68) 앞의 註 57) 참조

69) 앞의 註 20) 참조

IV. 詩世界

1. 作品概觀

西厓 柳成龍의 詩는 『西厓集』 권1에 119題 164首, 『西厓集』 권2에 102題 147首, 『西厓集』 「別集」에 152題 164首, 그리고 『西厓集』 「續集」에 303題 356首로 총 676題 831首가 전해지고 있다.

우선 『西厓集』에 실린 시들을 형식적인 측면에서 나누어 분석해 봤을 때, 총 831首 중에 5언과 7언의 절구나 율시의 근체시 형식을 띤 시는 총 693首이며 字數나 句數에 대해서 자유롭게 쓴 시는 138首이다. 이 중에서 근체시의 형식을 띤 693首중에서 5언 절구 형식은 67首, 5언 율시 형식은 173首이며, 7언 절구 형식은 275首, 7언 율시 형식은 178首이다. 그리고 자유로운 형식을 띤 138首의 시중에는 잡언시가 13首, 4언시가 5首, 8언시가 1首있다. 이로써 보면 서애는 자유로운 형식의 시보다 형식이 비교적 갖춰진 시를 많이 썼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정제된 시 형식을 5언 절구, 5언 율시, 7언 절구, 7언 율시로 나누고, 고체시와 비교했을 때 문집에 가장 많이 실려 있는 시는 7언 절구의 시이다. 7언 절구와 7언 고시의 특징을 살펴보면 경쾌하고 화려한 리듬감과 言盡而意不盡한 餘情, 餘韻의 효과로 서정적 감각표출에 가장 적합한 詩形은 7언 절구이고,⁷⁰⁾ 자유분방하고 리듬감있는 음률로 있어서 격양되거나 복잡한 감정과 사건을 표현하기에 적당하여 서정과 서사가 함께 구비되어 있는 시 형식은 7언 고시이다.⁷¹⁾ 서애

70) 신용호, 『한시형식론』, 전통문화연구회, 2001. 130면 참조

71) 吳戰壘, 『중국시학의 이해』, 태학사, 2003. 313면 참조

의 시가 7언 절구의 형식이 많다는 것은 서애의 詩作 방식이 서사보다는 서정적인 면이 다소 강하며, 한 인간으로서 자연이나 사물에 대해서 느낀 감정을 시로 그려낸 것에서 유래한다고 할 수 있다. ‘言盡而意不盡’ 한 餘情과 餘韻의 효과를 담고있는 7언 절구의 시 형식은 시 속에 담긴 흥취와 내면 의식을 중시하는 16C 후반 詩風을 표현하기에 알맞는 作詩방법이라고 하겠다.

위와 같이 문집에 실린 시들이 자신의 감정을 시로 풀어낸 것이 대부분이지만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주고받은 시들도 상당 수 있었다. 그 중 次韻한 시가 120首이고, 남을 위해서 지은 輓詩가 19首이고, 이별해 있거나 이별하면서 지은 시가 47首이며, 일상 속에서 교류하던 사람들에게 부친 시가 95首 있다. 이것은 서애가 자신의 개인적 감정을 시로 지은 일도 많았지만 遠志精舍나 玉淵書堂 등을 짓고 못다한 공부나 詩作활동을 하거나 사람들과 모여 교분을 나누는 장소로 이용했다는 얘기 등으로 볼 때 수많은 사람들과 시로써 서로의 情의 나누거나 학문이나 정치에 관해서 각자의 의견을 주고받는 등 활발한 교분을 나누며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서애의 시들이 고체시보다는 근체시가 대부분을 이루고 그 중에서도 7언 절구로 쓰였다는 점, 그리고 상당수의 시들이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서 지어진 시들이었다는 점에서 서애는 자신의 내면의식을 상당히 서정적인 어조로 풀어내려 했으며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학문적 의식과 감정을 드러냈던 것으로 보여진다.

2. 作品分析

서애의 『西厓集』에 실린 831首의 漢詩를 분석해보면 대부분의 시들에서 전통적인 사림과 문인의 특색과 더불어 순수한 문인다운 모습이 보였다. 내용적인 면에서 분석을 해본 결과, 자연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자연의 이치와 인간 성정의 바름을 추구하는 시들에서는 性情를 중시한 유학자다운 면모도 보이지만 그 속에서 고뇌하는 모습이 상당수 보였다. 서애가 비록 관료로서 삶의 대부분을 살았다고는 하나 李叔平에게 보낸 편지글에서는 ‘나는 평생에 시를 많이 짓지 못했고 이따금 생각이 나면 더러 지었었는데 지금 남쪽에 와서 조용히 있는 동안 가슴에 쌓인 회포를 소견하기 위하여 지은 것이 있네.’⁷²⁾라고 고백했던 것으로 보면 조정에 있거나 혹은 잠시 관직에서 물러나 있을 때 때때로 마음 깊숙히 내재된 의식을 시로써 풀어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영향으로 상당히 많은 시들에서는 ‘出’에 대한 반동으로 늘 ‘處’을 꿈꾸는 인간적이면서도 서정성이 묻어나는 시들이 많이 보였다.

本考에서는 내용적인 면을 중심으로 각 시들을 4개의 주제별로 나누어 보았다. 1) 자연을 바라보되 감상만을 위한 미적인 대상이 아닌 정신적 교화 진작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올바른 가치를 표현한 吟詠性情의 面貌와 2) 出과 處의 정신적 갈등 속에서 관료생활과 임무수행을 하며 느끼는 인간 역할에 대한 고뇌 그리고 올바른 가치 추구에 대해 고민을 드러낸 人間的 苦惱의 表出 3) 자연 풍광을 관조하며 그 자연 모습의 진수를 형상화하고 그 속에서 느낀 흥취를 표현한 自然 觀照的 興趣 그리고 마지막으로 4) 그러한 자연 속에서 오랜 세월 관료로서 지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속세를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낸 隱人 脫俗으로의

72) 『西厓集』 권12 「書」 〈答李叔平〉, “僕平生不多作詩往往意到則爲之南來閑居中嘗有追懷作.”

希求라는 주제가 그것이다. 이들 4개의 주제들은 앞서 Ⅲ. 文學觀에서도 언급한 시교적 관점과 심미적 관점의 입장에서 1)과 2)는 올바른 가치를 고민하고 추구하는데 있어서 시교적 관점과 주제가 연결되고 3)과 4)는 자연 풍광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순수한 내면의식을 표출시켜 흥취를 드러내고자 한다는 점에서 심미적 관점과 연결될 수 있겠다. 이러한 주제별 특징 분석을 통해서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조명받지 못했던 시인이자 문인으로서의 서애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1) 吟詠性情의 面貌

조선사회를 지배한 이념은 性理學인데 이는 存養省察의 인격수양을 중시한 규범적인 이념이다. 인간의 심성을 순화시키는 것이 현실을 바로잡는 첩경임을 중시한 정신적 가치는 조선시대를 지배한 이념이지만 16C 사림과 문인들에 의해서 이룩된 문학사에서는 文以載道的 문학관으로 완성되게 된다. 그들에게 있어서 ‘外物’이라고 하면 「江湖」·「山水」를 의미하는데, 사림과 문학에서는 자연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무런 私的인 감정 없이 자연 사물이 갖고 있는 성정과 이치를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 인식 방법인 ‘以物觀物’은 사물을 바라보고 자신의 감정을 표출할 때 개인적인 私心으로 사물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그 사물의 天機를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으로 극히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사유체계를 의미한다. 吟詠性情은 〈毛詩序〉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사관은 득실의 자취를 밝히고 인륜의 폐해를 가슴아파하고 패도정치의 가혹함을 슬퍼하며 性情을 읊조려서 위 사람을 풍간하고 일의 변화에 이르러서는 옛날 풍속을 품게 하는 자이다.”⁷³⁾에서 나온 말인데,

73) 『中國古代文學理論詞典』 397면, “國史明乎得失之迹 傷人倫之廢 哀刑政之苛 吟詠性情以風其上達于事變而懷其舊俗者也.”

초기 정치에 있어서는 아랫사람이 느낀 좋고 나쁜 감정을 윗사람에게 읊조려서 은근히 간하는 ‘諷諫’을 의미한다. 성정을 읊조린다는 것은 자신들의 내면의식을 순수하게 발하여 드러내는 것이며, 윗사람이 정치를 올바르게 하여 세상을 바르게 이끌도록 하는 수단이 되었다. 이렇게 시 속에 표현된 性情을 사회교화의 수단으로 파악하는 것이 시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新樂府運動을 전개하며 현실주의적 시풍을 중시한 唐나라 대표적 시인 白居易(772~846)도 張籍이라는 사람의 글을 읽고 시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시를 지음에 있어 어떤 의도였는가? 六義가 서로 펼쳐지니 風雅比興이 아닌 헛된 문장은 지은 적이 없다. 그대의 〈學仙〉을 읽어보면 방탕한 군주를 풍자할 수 있고, 그대의 〈董公〉을 읽어보면 포악한 신하를 깨우칠 수 있으며, 그대의 〈商女〉를 읽어보면 사나운 아낙을 어질게 할 수 있고, 그대의 〈勤齊〉를 읽어보면 경박한 사내를 후덕하게 만들 수 있다. 위로는 교화를 도울 수 있으니 시를 펼쳐서 만백성을 구하고, 아래로는 性情을 다스릴 수 있으니 거두어 들여서 一身을 수양한다.⁷⁴⁾

이와 같이 백거이도 시를 짓는데 있어서 六義의 정신에 입각하여 사회 교화를 위한 시를 짓는 것을 중시했다. 위로는 임금을 통해서 사회를 교화하고, 아래로는 각자 一身을 다듬고 수양하는데 그 시의 효용이 있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곧 시의 역할은 교화에 있으며 그 방법은 순수한 언어적인 표현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16C 文以載道的 문학관이 중시여기는 ‘溫柔敦厚’, ‘詩教’ 등의 정신과 같다.

74) 이병한, 『중국 고전시학의 이해』, 문학과 지성사, 2000. 30면 참조

“爲詩意如何 六義互鋪陳 風雅比興外 未嘗著空文 讀君〈學仙〉詩 可諷放佚君 讀君〈董公〉詩 可誨貪暴臣 讀君〈商女〉詩 可感悍婦仁 讀君〈勤齊〉詩 可勸薄夫淳 上可裨教化 舒之濟萬民 下可理性情 卷之善一身”

大道難從口耳傳	큰 도는 입과 귀로부터 전해지기가 어려우니
此心隨處自悠然	이내 마음은 처한 곳을 따라 절로 유연하다네
靜觀軒外千條柳	정관재 난간 밖 무수한 버들가지
春入絲絲不後先 ⁷⁵⁾	가지마다 봄빛이 하나같이 찾아 드네

이 시는 1568년 2월 선생 27세 때 휴가를 얻어 定州에 觀察公으로 계셨던 아버지 만나 뵈었을 때 靜觀齋란 곳에서 읊은 시이다. 이 시는 시에도 道를 담아야 한다는 도학사상에 따라 자연을 바라보는 눈이 극히 객관적이다. 1句에서 ‘道’라는 것은 입으로 말하고 그것을 귀로 듣는다고 알게 되는 지식이 아니라 어느 순간 깨닫는 사이에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으로, 도를 체득하기는 순간적이지만 그것을 얻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한 대목이다. 2句에서는 性情의 이치를 깨닫기만 하면 어디를 가서 무엇을 접하더라도 순간순간의 이치를 느끼게 된다고 하여, 道를 깨달은 후의 감정을 표현했다. 3, 4句에서는 靜觀齋 주변에 버들가지들이 산들거리는 바람결에 새롭게 보이는 것은 봄이라는 계절이 자연 사물의 본연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이유임을 얘기하고 있다. 이 시는 봄날 버들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계절상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 지금 느끼고 있는 심적인 안정과 하나가 되는 物我一體의 순간 자연스럽게 이치를 깨닫게 된다는 생각을 보여주는 시이다.

다음 시는 1573년 부친상을 당하여 집상한 후 조정의 부름도 告辭하고 은거할 때인 1576년 봄 遠志精舍에서 거닐면서 느낀 이치에 관해서 쓴 시이다.

人生好醜何曾定	인생의 좋고 나쁨이 어찌 미리 정해졌으랴
世上榮枯不足言	세상 영고성쇠 족히 말할 바는 아니네
雨後一聲山鳥喚	비 개인 후 소리는 산새 지저귀는 소리요

75) 『西厓集』 권1, 〈靜觀齋春日有感 戊辰〉

이른 봄날 원지정사에서 강가 모래사장을 거닐면서 갑자기 스쳐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시이다. 서애는 遠志란 의미에 대해서 적기를 ‘①遠은 먼 것은 가까운 것이 쌓여서 나아간 것이고, 志란 마음이 가고자 하는 것이다.’⁷⁷⁾라고 하고, ②遠志란 본래 약 이름으로써… 또한 醫家에서는 원지로써 오로지 심기를 다스려 능히 혼탁과 번민을 헤쳐 풀어주는 효험이 있다.’⁷⁸⁾하여 이 두 가지 뜻을 모아 원지정사라고 했다. 서애는 세속을 잠시나마 떠나고 싶어 건축한 원지정사에서 읊조린 이 시에는 세속으로부터 마음을 비우고 자연의 이치를 깨달을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지고 眞樂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담겨있다. 1, 2句에서 서애는 인생에 대해서 좋고 나쁘다고 미리부터 단정하여 평가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며, 세상의 영고성쇠 또한 말로 표현하기가 매우 구차스럽다고 말한다. 여기서 서애는 끊임없이 변화되는 인간세상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 말이란 사람의 감정이 북받쳐 표현되는 것인데, 세상의 이치란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임을 이 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3, 4句에서는 앞의 두 구절과 대비되는 자연의 불변 항상함을 얘기한다. 비가 개이면 자연스럽게 새가 지저귀고 봄을 알리는 신호인 매화는 남쪽 마을에서부터 피기 시작한다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세상을 담담히 바라보고 그 이치에 순응하는 인간의 자세에 대해서 읊조렸다. 가장 명백한 자연 현상을 짧지만 깊은 뜻을 담고 있는 시로 표현하여 榮華를 추구하고 애쓰고 만약에 얻지 못하면 절망하는 세속의 인심이 자연과 하나되는 마음가짐을 갖기를 바라는 생각이 담겨있다.

76) 『西厓集』 권1, 〈早春自遠志精舍步出江沙偶得〉

77) 『西厓集』 권17 「遠志精舍記」, “遠者近之積也 志者心之所之也.”

78) 전게서, “遠志本藥名…又醫家以遠志專治心氣能撥昏濁煩.”

默坐澄心鏡	조용하게 앉으니 마음의 거울 맑아져서
冥觀造物情	그윽하게 조물주의 뜻 바라보네
鳶魚自飛躍	소리개와 물고기 절로 날고 뛰어오르니
動息各生成	움직임과 고요함은 각각 알맞게 생겨나네
草綠溪翁室	풀 푸른 곳 溪翁의 집이요
花明處士庭	꽃이 환한 곳 處士의 정원이라
阿誰參至理	누가 지극한 이치를 헤아리는가
妙契入無聲 ⁷⁹⁾	말없는 데서 묘한 깨침이 있다네

위의 시는 천지만물을 관찰하면서 깨달은 바를 얘기한 것으로, 서애집 「雜著」에 있는 〈鳶飛魚躍〉에서 언급했듯이 성리학의 채도적 문학사상을 시로 형상화한 시이다. 1, 2句에서 학문적 깨달음을 위한 선 수행단계인 潛心을 통해서 마음의 평정을 이루어 자연을 바라보면, 3, 4句에서와 같이 세상의 이치가 저절로 보인다고 하면서 세상만물은 각각의 이치에 따라 생성되고 움직이니 그것을 바라보고 그 속에 담긴 이치를 헤아리는 것이 성정을 깨닫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자연은 조물주가 만든 그 상태 그대로 각자의 이치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니 이치란 이렇게 생동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5, 6句에서 푸른 풀과 꽃들이 만발한 곳은 곧 자연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그 자연을 누릴 줄 아는 처사들이 은거하는 곳이라고 했다. 7, 8句에서는 이치란 자연스레 깨닫는 묘한 깨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시는 이치를 깨닫기는 무척 어려우나 마음의 평정을 찾고 처신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올바른 가치는 올바른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피력한 시이다.

다음 시는 ‘吟詠性情’의 사유형식인 ‘以物觀物’에 대한 객관적인 태도에 대해서 읊은 시이다.

79) 『西厓集』 「別集」, 〈觀天地生物氣象〉

①臥聞松風長	누워서 오래도록 솔바람 소릴 듣고
起看山月出	일어나선 산에 뜬 달 바라보네
風清可人耳	바람 소리 맑으니 귀에 좋고
月白宜人目	달빛은 밝으니 눈에 좋다네
但得清明象	다만 청명한 모습 얻었으나
莫看清明跡	청명한 자취는 보기 어렵다네
物我相忘處	사물과 내가 서로를 잊어버린 곳
中涵一太極	그 가운데 태극이 담겨있네

②我讀古人書	나 옛 선현의 책 읽으며
欲見古人心	옛 사람의 마음을 보고자 했네
古人隔千載	옛 사람 천년이나 멀리 있어
杳然不可尋	묘연하여 찾을 수가 없었는데
時世有前後	세상의 때는 전후가 있으나
此物無古今	이러한 사물엔 고금 없다네
由來眞面目	본디 사물의 진면목은
道不在高深 ⁸⁰⁾	모두 높고 깊은 곳에 있지 않다네

①의 시는 사물과 나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읊는 ‘以物觀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읊조리고 있다. 자연 속 현상을 무심히 바라보면서 세상 자연의 이치를 얻는 것은 내 자신이 자연과 합일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1~4句中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소나무 소리를 듣고 산 위에 뜬 달을 보며 자연 현상을 가장 소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담담히 그려내고 있다. 정경에 대한 객관적인 모습을 그린 앞의 4句와 달리 5~8句까지는 그런 자연을 대하는 자신의 깨달음을 읊고 있다. 자연 현상을 감각기관을 통해서 접하면 그 자취를 쫓기란 쉽지 않다고 했다.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유일한 방법은 나 자신이 ‘物’이 되어 대상을 바라보고 서로를

80) 『西厓集』 권2, 〈雨霽後月色甚明二首〉

잃어버리는 것에 있으니, 이렇게 私心이 없이 사물과 내가 ‘物我一體’의 경지에 이를 때 비로소 太極을 얻을 수 있다는 전형적인 유학자의 사유방식을 시로써 드러냈다.

②의 시에서는 책이 아닌 자연을 통해서 깨닫는 이치를 설명하고 있다. 1~4句까지는 천년이나 지난 시간의 흐름을 이어줄 수 있는 책에는 옛 선현의 마음이 담겨있으나 그 속의 진리를 찾기란 쉽지 않다면서 5~6句에서 비로소 道에 대한 깨달음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책이란 선현이 적은 글로 시간의 차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그것을 뛰어넘어 깨닫기란 시간의 흐름만큼이나 어렵지만 비 개인 후 뜬 달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고 한결같다는 말을 통해서 변함 없는 자연의 모습에서 이치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방법이라고 하였다. 세상의 이치란 책 속에도 담고 있지만 일상 속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사물에서도 찾을 수 있음을 통해서 이치란 고고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느끼는 자연 속에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다음 시는 극히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세상사람들이 올바른 사고와 태도를 갖기를 바라며 지은 시이다.

天昏雲黑雷闐闐	먹구름 가득한 하늘에 천둥소리 진동하고
石壁雨點如撒菽	돌담에 떨어지는 빗방울 콩 흩뿌리듯 하네
孤舟疾棹過江來	돛단배 빠르게 저어 강을 건너오고
咫尺沿洄波浪惡	지척에 굽이쳐 노는 물결 사납네
人生到處得路難	인생 도처에 행로 역시 어려우니
不必瞿塘與巫峽 ⁸¹⁾	제방과 높은 봉우리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네

이 시는 극히 자연스레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인간 세상의 이치를 깨달

81) 『西厓集』 권1, 〈六月九日北潭舟中遇雷雨〉

을 것을 주장한 시이다. 1, 2句에서는 갑자기 쏟아 붓는 소낙비 형상을 눈에 보이듯 자세하게 묘사하여 그려내고 있다. 3, 4句에서는 여름날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작자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내리는 소낙비를 강 한가운데서 만나는 위태한 상황에 대해서 읊었다. 마지막 두 구절에서는 강물은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소낙비라도 내리면 사나운 너울로 넘실대듯 인생을 살다보면 순간 순간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지극히 일상적인 현상을 통해서 처한 곳에 안주하며 희희낙락하는 인간세상의 어리석은 풍조를 은근히 풍자하고 있다. 인생이란 평탄한 순간에 처하더라도 한 순간에 뒤바뀔 수 있으니 늘 항상 겸허하고 겸손한 태도를 지닐 것을 넌지시 드러내는 교화적 메시지가 담겨있는 시이다.

山中數曲寒溪水	산 속 굽이굽이 흘러온 찬 계곡 물
終日潺潺還自流	종일 졸졸 흘러도 또다시 흐르네
不知出壑有何急	발원 계곡은 알길 없지만 무슨 급한 일로
縱遇懸崖無暫留	비록 천길 낭떠러지 만나도 멈추지 않나
由來物性本如此	유래된 물성은 본디 이러하니
若比人心眞可羞	만약 사람의 마음과 비교하면 진실로 부끄럽다네
人於中道多自畫	사람은 도중에 스스로 그만두는 일 많은데
水非到海終不休 ⁸²⁾	물은 바다에 이르지 않으면 끝내는 쉬지 않는다네

‘山溪’라는 소재를 통해 인간에게 깨달음을 주는 전형적인 성리학적 성향의 작품이다. 1~4句는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서도 종일토록 쉬지 않고 흐르는 계곡 물을 형상화하였다. 앞 4句가 자연물의 본성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면 뒤의 4句는 잠시도 쉬지 않고 정진하는 계곡 물에 비해 무슨 일이든 중도에서 쉽게 그만두려는 인간의 바르지 않은 태도를 비교하고 있다. 끝까지 목표로 한 곳에

82) 『西厓集』 「續集」, 〈山溪〉

도달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 계곡 물을 통해서 인간 또한 한 번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을 보고 완성하는 性品을 지니기를 녀지시 기대하고 있다. 이 시는 이러한 ‘以物觀物’의 인식태도를 통한 ‘性情’과 ‘理致’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文以載道的 의식이 담긴 시로써, 인간의 심성을 순화하고 다듬고자 하는 시교적 성향이 강한 시이다.

지금까지 알아본 시들은 올바른 성정을 함양하기 위한 정신적 가치를 담고 있는 吟詠性情의 시들이었다. 사물에 대해 읊조릴 때 그 사물을 화려하게 수식하여 꾸미는 일은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본 서애는 시란 자연이 담고 있는 이치를 깨닫고 그 속에 담겨있는 올바른 가르침을 바르게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詩教를 통해서 심성수양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과의 文以載道的 문학관의 전형적 의식으로써 16C 사림과 문학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2) 人間的 苦惱의 表出

서애는 늘 현재 처해있는 상황 속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고민했다. 관료로서는 벼슬이 능력에 합당한지를 반문했고, 혹시라도 자신의 무능함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으며, 나라를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부모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은 늘 자신을 괴롭혔다. 다음의 시들은 그러한 서애의 애절한 심정과 고뇌하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바른 가치관과 역할 그리고 인간도리에 대해 성찰하는 시들이다. 결국 이러한 시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고 올바른 역할을 생각하게 하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聖主洪恩重	성군의 은혜는 크고도 중한데
孤臣罪釁多	외로운 신하의 죄는 많기만 하네
一言無補效	한 마디 말로도 보탬이 못되고
萬計悉蹉跎	만 가지 계책은 모두 어긋나네
風樹南來晚	부모 모실 걱정되나 남쪽가기 늦었고
宮雲北望愁	궁궐 구름 북쪽으로 멀리 바라보네
惟殘數行淚	오직 흐르는 눈물만
寄灑漢江派 ⁸³⁾	한강 물에 뿌려 보내네

이 시는 임금의 은혜에 대해 보답하지 못하는 점을 괴로워하며 지은 시이다. 1604년 3월 玉淵書堂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報國을 위한 계책을 내놓지도 못하고 하는 일마다 자신의 뜻과 어긋나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느낀 느낌을 적은 시이다. 이러한 亂國에서 아무 것도 보탬이 되지 못하는 현실은 관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괴로운 일이다. 임금에게 하는 報恩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고향으로 마음대로 내려서지도 못하는 괴로운 심정에 대해서 서애는 흘린 눈물을 漢江 물에 뿌린다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떨쳐 명성을 얻은 사람의 이면에는 자식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양면성이 있기 마련이다. 부모님을 늘 곁에서 모시지 못하고 국가의 부름으로 客地생활을 해야만 했던 서애는 입신하여 도를 행하고 후세에 이름을 날려 부모를 드러나게 하는 면에서는 효를 다했지만 昏定晨省같은 기본적인 도리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시들은 자식으로서 부모를 그리워하는 심정을 잘 드러난다.

回首日落處 헤지는 쪽으로 머리 돌려 생각하니

83) 『西厓集』 권2, 〈送金昌遠赴江陵三首〉 中 三首

蒼茫海氣昏	아득하니 바다가 어스름해지겠지
望雲千里隔	천리 두고 구름 멀리 바라보며
陟岵到黃昏 ⁸⁴⁾	어둡도록 민둥산에서 올라가 있네.

위의 시는 1568년 작자의 나이 27세에 낙동강 동쪽 봉우리에 올라 定州(평양성 근처 지방)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그리워 적은 시이다. 정주지방 관찰공으로 계셨던 아버지를 홀로 계시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뵈러 다녀온 자식의 마음을 나타낸 시이다. 그 해 2월에 아버지를 뵈고 와서 3월에 조정으로 돌아왔다가 하회에 들러 형을 보니 한달 전에 뵈었던 아버지가 그리워진 것이다. 1, 2句는 해질녘 아버지가 계시는 정주지방을 향해 고개 돌려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계실 그곳의 해질녘 풍경을 상상하고 아버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그리움은 3, 4句의 ‘望雲’ 과 ‘陟岵’ 로 표현되고 있는데, 모두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이 부모를 그리워하는 심정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매개물이다. 이로써 서애는 아버지가 계시는 곳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싶은 마음에 어둡도록 민둥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었다고 표현했다. 이 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주변 정경과 어버이 그리는 그리움이 先景後情의 형태로 잘 표현된 시라 하겠다.

荒郊匹馬已斜陽	황량한 들판 말달리는데 해는 저물고
景物無端惱客腸	속없는 자연 경관 객의 맘 괴롭히네.
野渡寒波生晚碧	들판 건너 찬 물결은 저물녘 절벽에 일고
驛亭柳流上微黃	驛亭에 성근 버들은 옅은 노란 물 올랐네
思來忽覺幽明隔	그리움에 찾아가면 유명 다름 깨달겠고
別後仍驚歲月忙	이별 후엔 그제서야 세월 빠름 놀란다네
欲說心懷憑短句	깊은 마음 짧은 글로 실어보내 보려는데
淚交殘墨不成章 ⁸⁵⁾	눈물로 먹물 먼저 글을 쓰지 못하네

84) 『西厓集』 「續集」, 〈洛河東峯暮登望定州〉

위의 시는 제목에서도 언급했듯이立春이 지난 후에 성묘하고 豊山을 바라보며 지은 시이며, 先墓가 있는 金溪⁸⁶⁾에서 봄날의 경관을 포착하고 그리움을 상징하는 가장 보편적인 소재를 통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절실하게 표현한 시이다. 1, 2句에서는 해질녘 황량하기 그지없는 들판으로 말을 타고나오니 모든 사물은 그리움을 증폭시킨다고 말한다. 3, 4句는 이별의 정한을 표현하는데 적절 한 강물결과 버드나무 잎 등의 주변 경관을 소재로 그리운 情恨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5, 6句에서는 金溪에 처음 장사지내려 왔을 때는 그저 돌아가심에 대한 슬픔만을 느꼈지만 세월이 흐른 후 다시 찾아 온 느낌은 예전과 사뭇 다르다. 구체적으로 세월이 너무나 빨리 흘러갔음을 얘기하면서 세월이 흐른 만큼 생각의 깊이도 많이 달라졌음을 얘기한다. 7, 8句에서는 자신의 이러한 어버이에 대한 情恨을 시로 표현하고자 하나 눈물이 앞을 가려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세심하게 그려내고 있다. 제목에서 豊山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더불어 고향에서 아버지 없이 혼자 사시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자식된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서애는 오랜 관료생활로 인해서 다하지 못했던 자식의 도리를 임종을 앞둔 어머니를 보살피드리는 것으로 갚고 싶다고 아래와 같이 사직을 청하기도 하였다.

바라옵건데, 성상께서는 신의 지극히 애통함을 가엽게 여기시고, 신이 병들어 쇠약함을 살피시어 하루 속히 신의 직위를 해임시키시어 신으로 하여금 죽기 전에 죽음에 임박한 어머니를 가서 뵈게 해주신다면 천지부모와 같은 은혜가 한없이 이룩될 것입니다. 溝壑한 생각이 隕首結草 하기를 맹세합니다.⁸⁷⁾

85) 『西厓集』 「別集」, 〈立春後出金溪望見豊山驛里柳色微黃感興懷悽然泣下〉

86) 선생 32세 때인 癸酉年 7월에 관찰공(아버지) 喪을 당함. 그 해 11월 天燈山 金溪에서 장사지내고 내려옴.

87) 『西厓集』 〈請解職歸省老母筭〉 乙未九月, “伏乞 聖慈 憐臣至痛 察臣羸瘵 亟命違免臣職

은근하게 사직을 청하지만 그 속에 담긴 심정은 절박하게 드러나 있다. 이러한 표현 속에 오랜 관료생활로 묻어 나온 서애의 연륜이 느껴진다.

조정관료로서는 보국에 대한 무능이 자식된 자로서는 늘 부족한 부모봉양에 대한 괴로운 심정이 늘 자신을 괴롭히지만 마음 한 구석을 차지했던 또 하나의 것이 바로 出處에 대한 것이었다. 다음에 나오는 시들은 자신이 추구하고자 했던 삶의 이상과 현실이 괴리됨으로써 느끼는 심정을 읊은 것들이다.

眼前世事自乘除	눈 앞 세상일 절로 번성하고 쇠퇴하니
身外浮名摠幻如	뜬구름 같은 명성 모두 환상일 뿐이라네
千里宮雲西望裏	천리 밖 궁궐구름 서쪽 바라보는 중에 떠있고
一窓和雨午眠餘	오수 중에 창가엔 봄비가 내리네
平生湖海慙高蹈	평생 은자가 세속을 초탈함이 부끄러운 것은
末路風塵更曳裾	말년에 속세 속에서 다시 옷자락을 끌어서라
隱顯從知無二致	은거와 현달 두 이치 없음은 알아
只應於此辨熊魚 ⁸⁸⁾	다만 응당 여기서 熊魚 가릴 뿐이네

이 시는 서애 46세 되던 1587년 늦봄 어느 날 장차 서쪽으로 가면서 감회가 있어 지은 시이다. 비록 서애 자신은 임금의 명을 맡아 서역으로 떠나지만 늘 항상 세상의 名聲과 富에 대한 회의를 지녔던 것 같다. 1, 2句에서는 자신이 생각하기를 세상일이 때로는 번성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지만 부귀영화는 浮雲과 같을 뿐이라며 현실 속 화려한 명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 첫 구절부터 드러난 은일에 대한 向念이 다음 구절에서는 비유적으로 표현되었다. 3, 4句에서는 천리의 궁궐 구름이 서쪽 하늘 저 멀리에 있다고 하면서 못내 아쉽지만 한편으로는 할가분한 심정을 자는 중에 들리는 희미한 빗소리로 표현했다. 서애

使臣得於未死之前 往見臨命之母 則天地父母之恩 曲成無方 溝壑一念 隕結爲期。”

88) 『西厓集』 「續集」, 〈青城有詩來時余將有西行感懷再次〉二首 丁亥暮春

가 항상 처사로서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은 5, 6句에 선명하게 드러난다. 命으로 어쩔 수 없이 다시 세속으로 떠나는 관료의 고뇌하는 모습은 평생의 海湖之士가 잠시 서역의 먼 곳으로 떠나면서 속세 속에서 옷자락을 다시금 더럽히게 됐다는 표현으로 드러냈다. 7, 8句에서는 은거하는 삶과 현달하는 삶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은 熊魚를 둘 다 가질 수 없다는 것과 같다고 했다. 한 곳으로 확실히 자리를 굳히지 못하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애써 위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는 세상에서는 出과 處를 한꺼번에 하기 어렵다는 깨달음 속에서, 마음은 處에 있으나 命을 따르는 몸이기 때문에 행동의 제약이 많은 자신의 처지를 안타깝게 읊은 시라 하겠다. 이렇게 出과 處의 갈래 길에서 혼돈해 하던 서애는 세월이 흐른 후 다시금 다음의 시와 같이 자신의 마음을 그려낸다.

養身無奇策	몸을 다스리는 기묘한 계책은 따로 없고
安心是妙方	마음 편히 갖는 것만이 묘방이라네
平生虛過氣	평생동안 허황되고 지나친 기운으로
奔走惜流光	분주하게 보낸 지난 세월 애석하네
葉積秋扉掩	낙엽은 수북히 가을녘 사립문을 가리고
窓寒野菊香	창가엔 찬 기운에 들녘 국화향기 은은하네
如何年四十	살아온 40년간 어떠한가 하니
猶自嘆亡羊 ⁸⁹⁾	오히려 스스로 양을 잃음 한탄하네

위의 시는 서애가 자신의 삶 속에서 40년 관직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정리 회고한 自評이다. 늘그막에 병중에 시달리면서 서애는 1, 2句에서처럼 늘 괴로워하는 자신을 스스로 위로할 방법을 찾았는데 결국 찾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 뿐이다. 이런 괴로움은 부족한 자신이 관직생활로 세월을 보냈다는 것에 대한 회

89) 『西厓集』 「續集」, 〈題卷衣〉

고에서 비롯되는데, 그런 마음을 직접적으로 나타낸 구절이 3, 4句이다. 5, 6句에서는 스산한 가을날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사립문을 가릴 정도로 수북히 쌓인 낙엽과 찬바람 부는 창가에 은은하게 불어오는 국화 향기를 감각적으로 묘사하면서 외롭고 쓸쓸한 감정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7,8句에서는 학업에도 국정에도 가족에게도 충실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는 인간적 고뇌를 양을 잃고 한탄한다는 표현으로 대변하였다.

서애는 오랜 세월 고향이 아닌 他地에서 공무를 수행했다. 이와 같이 오랜 시간 나라를 위해서 일했지만 생의 마지막에 ‘三恨’⁹⁰⁾을 얘기했을 만큼 늘 관료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뇌와 더불어 부모봉양에 부족했던 삶을 괴로워했다. 그리하여 시에는 나라에 대한 걱정 및 고향에 계실 어버이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드러난 것이다. ‘人間的 苦惱의 表出’의 주제에서는 보국과 애민을 생각하는 관료의 모습 이면에서 나라와 부모에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 인간적으로 고뇌하는 심정이 잘 표출되어 있다. 이것은 자신의 처지를 통해서 신하로서 또 자식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고, 올바른 역할 확립에 대한 의식을 나타낸 시로, 시를 읽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게 하는 교훈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3) 自然 觀照的 興趣

자연 관조적 흥취는 서애의 문학관 중에서 심미적 관점의 대표적 양상이다. 이 관점은 사물을 던지시 바라보고 그 속에서 느끼는 감각적 흥취를 포착하는 것으로 또한 사물을 읊는 방법을 중시한다. 사물을 읊는 것에 대해서 淸나라 黃子雲

90) 앞의 註 28)참조

은 『野鴻詩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詠物이란 사물의 이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지니고 있는 정취를 그려내는 것이다.’ 이는 ‘空靈’과 ‘白描’가 아니고서는 해낼 수 없는데, 여기서 ‘空靈’이라 함은 그림에서 여백을 남겨 거기에 情意를 기탁하는 것으로 그 묘미는 無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白描’라 함은 중국화법에서 淡墨으로 윤곽을 그리고 색채를 칠하지 않는 기법으로 문학에서 이를 전용하여 수식과 조탁을 가하지 않고 묘사할 때 일컫는 말이라고 한다.⁹¹⁾

詠物은 곧 여운의 미를 말하는데, 興趣 중에서 ‘興’이 시인이 외부사물로부터 느끼는 정감이고, ‘趣’가 정취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서로간의 개념이 유사하다. 또, 자연을 보고 단순한 이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느낀 정취를 담박하고 그윽하게 표현하려는 의미에서 宋代의 審美理想을 주장했던 엄우의 ‘言有盡而意無窮’의 妙悟와도 유사하다. 이러한 관점은 앞서 III. 문학관 심미적 관점에서도 얘기했듯이 시를 표현하는 수사적 기교나 형식이 시를 파악하는 주된 요건이 아니라, 시를 통해서 반영된 시인의 내면의식과 시정신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즉, 시인의 정신적 자취를 시속에서 찾아 음미하고 그 흥취를 느끼는 것이 시를 파악하는 주된 요건이라는 이 관점은 16C 후반 추구된 唐詩風의 경향이자 서애의 시의식에서도 볼 수 있는 관점이다. 서애의 審美的 美意識는 다음 시들을 통해서 잘 나타난다.

危臺高出白雲端	높게 자리한 洗心臺 흰 구름 끝자락에 걸쳐있고
松桂蒼蒼水石間	물과 바위 사이엔 소나무 계수나무 푸르르네
有客獨來還獨去	나그네 홀로 왔다가 홀로 가니

91) 이병한, 『중국 고전 시학의 이해』, 문학과 지성사, 2000. 120면~121면 참조

風吹暮雨滿空山⁹²⁾ 저물녘 부는 비바람 텅 빈 산에 가득하네

위의 시에서 작자는 세심대라는 곳에서 유유히 거닐다가 우연히 비를 만난다. 높은 산자락에 자리한 ‘마음을 씻어낸다’는 의미의 누대는 마침 저물녘 내리는 비와 어우러져 흥취를 더한다. 樓臺가 흰 구름 끝자락에 자리했다는 것은 높이 자리한 洗心臺의 위치를 짐작하게 하는데, 그 사이에 펼쳐진 소나무와 계수나무는 일상을 탈피한 개념을 만드는 詩語들로 계곡물, 바위 등과 어우러져 비오는 가운데 水墨的인 느낌을 한층 더해주고 있다. 아무런 구속 없이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나그네는 때마침 내리는 비를 맞으며 고요한 산 속의 정경에 흠뻑 젖는다. 서애는 이런 모습과 풍경을 아무런 私心 없이 관조하고 있다. 빼어난 정경 속에서 느낀 감정을 정답게 표현한 시들로 이 시는 서애의 순수한 서정미를 많이 느낄 수 있다.

山澗泠泠落小塘	산 계곡물 줄줄거리며 작은 못에 떨어지니
新荷點水動微香	새로 핀 연꽃에 맺힌 물방울에선 은은한 향기이네
幽居漸覺塵緣少	한적하게 사니 점점 세속의 인연 적어짐을 깨닫고
只有清風共晚堂 ⁹³⁾	해질녘 서당엔 다만 청명한 바람만이 부네

위의 시에서 작자는 비오는 날 비를 무릅쓰고 玉淵書堂으로 와서, 스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계곡물을 대나무를 사용해서 연못으로 대는 작업을 한다. 연못에 떨어지는 그 물방울 소리가 너무나 영롱하여 감상을 적은 시로, 산 속에 홀로 거처하면서 느끼는 감흥이 감각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1句에서는 옥연서당의 고즈넉한 풍경 속에 연못에 방울져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서당 안에 울려 퍼지는 상

92) 『西厓集』 권1, 〈遊洗心臺遇雨〉

93) 『西厓集』 「別集」, 〈冒雨獨來玉淵令僧剖竹引山泉墮石上其聲琮琤可愛睡起成一絕〉

황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방울져 떨어지는 물소리를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드러내어 속세에서 벗어나 사는 감흥을 표현했다. 2句에서는 연꽃에 새로 핀 연꽃에 방울져 있는 물방울은 영롱한 빛을 내고, 때마침 부는 바람 타고 퍼지는 은은한 연꽃향기를 순간 포착하여 누구도 함께 하지 않는 혼자만의 세계를 영롱한 물방울이라는 시각적 심상과 연꽃향기의 후각적 심상을 통해서 표현했다. 3, 4句에서는 세속의 기운 느껴지지 않는 한적한 공간 속에서 맑은 바람 쐬며 소요하는 흥취를 담담한 어조로 그려내고 있다. 여기서 맑은 바람은 속세와 떨어진 자신의 담박한 감정을 잘 나타낸 시어이다.

半壁青燈翳復明	벽 가운데 푸른 등불 꺼질 듯 하다 다시 밝아지니
夜深寒雨滿空庭	깊은 밤 내리는 찬 비 텅빈 뜰에 가득하네
秋風無限相思意	가을 바람 끝도 없이 불어 서로 생각하니
何處吹殘玉笛聲 ⁹⁴⁾	어느 곳에서 부는지 옥피리 소리 잔잔히 들리네

위의 시는 앞의 두 시들의 분위기와 달리 가을 밤 한가하게 홀로 있으면서 느낀 고독한 정회를 풀어낸 시이다. 1, 2句에서 벽에 걸려있는 푸른 등불이 꺼질 듯하다가 다시 밝아지는 어느 가을밤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밤 깊은데 내리는 빗소리로 공허하고 쓸쓸한 감정을 느끼며 창 밖을 바라보는 작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3, 4句에서 스산하게 부는 가을 바람과 어디선가 들려오는 피리 소리는 이렇게 고독한 분위기를 더하게 만드는 소재이다. 가을 밤 홀로 있어 한적하고 고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누구와도 만나지 못하는 자신의 외로운 심상을 꺼질 듯한 불빛과 빗소리 그리고 피리소리 등의 소재를 통해서 형상화하였다.

다음 시들은 자연 소재를 보고 느낀 감정을 표현한 시들이다.

94) 『西厓集』 「別集」, 〈閒情〉

誰將百鍊江心鏡	누가 장차 강 속 거울을 거듭 다듬어
掛在花山第一峯	화산 제일봉에 걸어놓았나
影入西齋生夜白	달빛이 서쪽 재각에 드니 밤중에도 환하여
水光山色有無中 ⁹⁵⁾	물결과 산이 없던 중에 보이네.

위의 시는 정사에서 바라보는 달에 대한 감상을 글로 적은 것이다. 이 시는 상당히 감각적인 표현이 강한데, 1句에서 표시한 달의 모습은 기존 서애가 보였던 그 어느 시보다 세심한 묘사라고 하겠다. 강 속에 담겨진 달을 누가 깎고 다듬었냐고 묻고, 이어지는 2句에서 ‘화산 제일봉 위에 있다.’는 표현을 통해서 밤하늘에 휘영청 밝은 달 조각이 산마루에 걸려있는 모습을 회화적으로 표현했다. 이러한 정경묘사를 그린 후 3, 4句에서는 서쪽 齋閣에 달빛이 드니 보이지 않았던 물과 산 빛이 그대로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온갖 것이 다 들여다보인다고 함으로써 달을 거울에 비유하여 그 정취를 그려내고 있다. 밝은 달빛을 즐기는 이 시는 고요한 정사에서 달을 홀로 마음껏 즐기는 작자의 유유자적한 풍류가 엿보이는 시이다.

江水微生欲浸莎	강 물결 미미하게 일어나 도롱이 적시고
晚來雲黑雨還多	저물녘 온 먹구름에 비가 세차게 내리네
西臺一夜春風急	서쪽 누대엔 밤 내내 봄바람 급했으니
落盡臺邊萬樹花 ⁹⁶⁾	누대 곁에 숲속 나무 온갖 꽃들 다 졌겠네

위의 시는 강가에 내리는 비를 형상화했다. 1, 2句는 아래로는 강 물결의 모습과 위로는 먹구름 몰려와 부는 세찬 비바람을 세세히 묘사하여 그리고 있다. 강에서 일어나는 물보라에 도롱이가 서서히 적셔진다면 먹구름이 몰려와 세찬

95) 『西厓集』 권2, 〈精舍西齋對月〉

96) 『西厓集』 권1, 〈江雨〉

비바람 뿌린다는 표현을 통해서 시간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모습을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3句에서는 서쪽 樓臺에 온 밤 내내 불어닥친 비바람을, 4句에서는 밤사이에 분 바람으로 떨어진 온갖 꽃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로써 비바람으로 저버린 꽃에 대한 안타까운 감정을 표현한 이 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다음 시는 정사 주변에서 보이는 저녁 무렵의 경관을 통해서 흥취를 드러낸 시이다.

晝關看山戶	낮에는 산 보느라 문을 열고
晨開讀易窓	새벽에는 주역 읽느라 창을 여네
塵氛近消散	세상 기운 가까워도 금새 사라지니
芳草滿春江 ⁹⁷⁾	꽃다운 풀들 봄 강가에 가득하구나

자신이 속세에서 벗어나고자 지은 精舍에서 저녁 무렵 주변경관을 보고 느낀 감흥을 읊겨 적은 시이다. 정사에서 세속의 기운 없이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는 작자는 그의 생활상을 그대로 시로 표현했다. 1句는 낮 동안 자연을 즐기는 삶의 모습을 그린 구절이다. 집 근처에서 보이는 산을 바라보려고 굳게 닫힌 문을 연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찾지 않는 한적한 곳임을 말해준다. 2句에서 새벽마다 주역 읽으려 여는 창가는 낮과 대비되는 또 다른 모습이다. 낮은 자연을 무심하게 관조하는 때라면, 새벽은 조용히 자신을 관조하는 시간이다. 3句에서는 고요한 정사에는 어떤 세속적 기운이 범접하지 못하는 특별한 공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속과 단절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심정을 나타냈다. 마지막 구절에서는 자신이 사는 이곳엔 더러운 기운은 없고 오로지 은은한 꽃향기만 가득하다고 하면

97) 『西厓集』 권1, 〈精舍晚興〉

서 나른한 봄날 저녁에 느끼는 감흥을 감각적으로 나타냈다.

待月期何處	달 뜨기 기다리니 어느 쪽을 기약하리
東南第二峯	동남 쪽 두 번째 봉우리라네
晚雲初解駁	저녁구름 처음으로 흩어졌다 섞이더니
飛鏡忽騰空	거울은 날아올라 공중에 떠오르네
歷亂山頭樹	어지러이 늘어선 건 산의 나무들이요
微茫水底虹	흐릿한 건 물밑의 무지개라네
幽人乘逸興	은자는 세속 떠난 흥취타고
長嘯倚江風 ⁹⁸⁾	강바람 맞으며 길게 휘파람부네

위의 시는 자연 사물을 통해 나타낸 흥취를 잘 드러낸 시이다. 어느 날 저녁달을 기다리며 아름다운 정취를 만끽하며 지은 이 시는 서애의 시들 중에서도 회화적인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달을 거울로 비유하여 그 사물의 모습을 그리는 것은 자연을 관조하며 읊는 대표적 표현방법이다. 1~4句는 달이 뜨는 동남쪽 봉우리를 바라보며 달이 뜨기만을 기다리다가 달이 막 떠오르는 정경을 포착하고 묘사하고 있다. 처음엔 구름에 가렸다가 구름이 흩어져 사라지자 밤하늘에 떠오르는 달을 순간포착하고 그 모습을 날아오르는 거울로 묘사한 구절은 시인다운 재치가 엿보인다. 5, 6句에서는 달이 뜬 후 달빛이 비춰진 산과 강가의 그윽한 풍경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전까지의 詩句가 詠物을 통해 사물을 세밀하고 시각적으로 그렸다면, 7, 8句에서는 그러한 감각을 감성적인 내면 흥취로 표현한다. 밝은 달빛을 맞으며 흥에 겨워 강바람 맞으며 부는 모습은 자연의 그윽한 정취를 즐기는 한가한 모습 그 자체이다.

지금까지 자연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바라본 사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자연과

98) 『西厓集』 권2, 〈待月〉

합일된 경지에서 서정적이고 순수한 자기 감정을 표현한 自然 觀照의 興趣의 시들을 살펴보았다. 자연을 평담하게 읊조리되 직관적 감흥을 통해서 생기는 餘韻을 비교적 세심하게 그려낸 서애의 시들에서는 그의 흥취적인 문예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

4) 隱人 脫俗으로의 希求

서애가 李叔平라는 사람의 편지를 받고서 쓴 편지글 중에는 자연 속에서 은일하여 사는 자신의 심정을 그려낸 부분이 있다.

관리가 되면 마땅히 정신적인 노력을 하여 백성을 보살피야 하나, 어찌 집에 들어앉아서 자연을 즐기는 거와 같겠는가? 그러나 형편에 따라 편안하게 여기는 것은 옛 사람들이 고귀하게 여긴 바일세. 내 마음속에 참으로 樂地를 얻었다면 어디인들 소요할 수 없을까? 세상의 영예와 치욕에 관하여서는 본래 우리의 身上에 관련이 없는 것인데, 더군다나 훌륭한 사람들이야 어떻게 그러한 데에 조금이라도 미련과 서운함을 느끼겠는가?⁹⁹⁾

라고 한 대목을 보면 관리로서 이상을 펼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요 영광스런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상을 펼치지 못하고 은거할 때는 자연을 소요하며 즐기는 것 또한 옛 선현이 귀하게 여겼던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그는 세속에서 벗어나 江湖에 자신을 맡기고 사는 자신의 생활을 만족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관료 생활을 했지만 그 만큼 어느 누구보다도 조용한 자연

99) 『西厓集』 권12 「書」, 〈答李叔平〉, “吏固不免勞心撫字 豈能如在家樂天放然隨遇而安古人所貴胸中苟得樂地何處不可逍遙也 至於人世榮辱於吾人身上本不相關達者何曾一毫生戀悲於其間哉.”

속에서 儒者로서 못 다한 공부를 하고자 했던 그는 평생동안의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두 개의 精舍를 지었다. 그 하나는 서애가 吏曹佐郎으로 재임시 1573년 부친상을 당하고 執喪한 후 조정의 부름을 고사하고 은거하던 1576년에 완성한 遠志精舍와 그 뒤로 10년 후 더욱 속세에서 벗어나 그윽한 산천의 멋을 누리하고자 탄홍이란 스님의 도움으로 짓게 된 玉淵書堂이 그것이다. 〈遠志亭〉이라는 제목의 시의 3, 4句에서 서애는 ‘인간의 지극한 즐거움은 다른 게 아니라, 고요히 앉아 책보니 그 맛의 여운이 깊네.¹⁰⁰⁾’ 라고 표현하면서 處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處’ 로의 갈망은 늘 外地를 다니며 오랜 관직생활을 했던 관료였다면 그에 대한 반동으로 느낄 수 있는 정상적인 감정이다. 세속으로부터 은둔하여 자연 속에서 살고자 하는 바람을 드러낸 시라든가, 혹은 실제로 관직에서 물러나 자연 속에서 사는 모습을 그린 시들에는 서애의 탈속으로의 갈망과 만족감이 강하게 드러난다.

아래의 시는 처음으로 짓게 된 遠志精舍에서 바라본 한적한 정경을 담담히 그린 시이다. 잠시나마 속세에서 벗어나 느끼는 탈속의 세계를 정원에 핀 여러 꽃들을 나열하고 그 속에 담긴 생각을 통해서 속세로부터 벗어난 만족스러운 감정을 자세히 드러냈다.

淵明有三徑	연명도 삼경이 있었는데
猶自託於文	오히려 스스로 글을 썼네
況我諸般卉	하물며 나는 온갖 풀이 있는데
同時滿一園	온 정원에 만발했다네
簷前雙玉立	처마 앞에 쌍옥이 서있고
牆下四桃昏	담장 아래에 네 그루의 복숭아나무 우거졌네

100) 『西厓集』 권1, 門掩蒼苔竹映堂 栗花香動午風涼 人間至樂無他事 靜坐看書一味長

西畦種枸杞	서쪽 밭에 구기자나무를 심었고
北庭移梨根	북쪽 정원엔 배나무 뿌리를 옮겼다네
山茶與海棠	산차와 해당화는
并芳若弟昆	아울러 향기를 내는 것이 형제같고
芍藥短叢條	작약나무 무성한 가지 짧은 것들은
比附爲兒孫	어린 손자에 비할 만 하고
薔薇正顏色	장미는 뚜렷하게 예쁜 모습에
黃花耀籬藩	누런 국화 울타리서 빛나고 있네
格柘不事文	산뽕나무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實多令人吞	열매가 많아 사람들을 먹여주네
葵誠最可愛	해바라기가 최고로 아름다운 건
白日傾天門	대낮에 하늘 향해 피었기 때문이라네
更有蒼髯公	다시 푸른 소나무 있으니
直氣何軒軒	곧은 기운 어찌 그리도 출중한가
根藏萬丈勢	뿌리는 만장의 힘을 숨기고 있는 듯하고
意欲撐乾坤	뜻은 하늘과 땅을 지탱하는 듯하네
主人信貧寒	주인은 진실로 가난하여
三旬或九殮	삼십일에 혹 아홉 번 끼니를 때운다네
閉門日相對	문을 닫고 날마다 서로 마주 대하는 건
羅列陳楹軒	죽 늘어선 난간 기둥들이라네
生涯亦繁華	사람 삶 또한 번잡하기만 한데
富貴如浮雲 ¹⁰¹⁾	부귀는 뜬구름과 같네

위의 시는 원지정사의 정원에 핀 여러 꽃과 나무들 각각의 실속있는 성품을 담박하게 서술하면서 그런 와중에 느끼는 자족감을 그리고 있다. 1~4句에서는 아름다운 온갖 꽃들이 동시에 만개한 자신의 정원은 도연명이 즐겼을 법한 고즈넉하고 소박한 정원 같아서 매우 아름답고 운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후의

101) 『西厓集』 권1, 〈遠志精舍記花〉

4句에서는 처마, 담장, 서쪽 밭두둑, 북쪽 정원 등 각 정원 주변에 있는 꽃과 나무를 설명하고, 9~12句에서는 산 차와 해당화는 함께 어울려 향기가 나니 마치 형제와 같고, 작약의 짧고 여린 모습은 손자 같다고 하여 사람의 형상으로 비유하였다. 장미는 또렷한 모습으로 피어있고, 누린 국화는 울타리에서 빛나며, 산뽕 나무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열매를 많이 생산해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늘 낮에도 하늘을 향해서 피어 있는 해바라기라고 하였다. 또, 출중하고 끈은 기운 지닌 소나무를 예찬하기도 하였는데, 뿌리가 만장이 나 되어서인지 하늘과 땅을 지탱하고자 하는 기상이 엿보인다고 하였다. 도연명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간직한 채 늘 그와 같은 삶을 누리하고자 했던 서애는 처음으로 지은 遠志精舍에서 도연명과 같은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하고자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두 구절에서는 사람의 삶은 번잡하고 부귀 또한 뜬구름과 같다고 하면서 세속의 삶에 욕심 없는 隱者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靑山數疊如拱揖	푸른 산 겹겹이 서로 읊 하듯이 둘러섰고
碧玉一片秋江虛	푸른 하늘 한 조각 달 가을 강 텅 비었네
孤亭十年僅有成	외로운 정자 십년 동안 겨우 만들어서
從今辦作幽人居	오늘까지 애를 써서 은자 거처 이루었다네
幽人遠赴蓴鱸約	은자 멀리 와서 순채·농어 먹겠노라 약속하고
江風細拂紅塵裾	강바람은 솔솔 불어 옷자락의 먼지 털어 주네
山僧有志事竟諧	스님께서 마음 내어 마침내 해냈으니
小園脩竹依江墟	소담스런 대나무 정원 강 언덕에 의지했네
研朱點易碧窓寒	주자 주역 연구하는 푸른 창가는 찬데
歲晚相從吾與渠 ¹⁰²⁾	해 저물도록 우리서로 함께 좇아보세

102) 『西厓集』 「別集」, 〈北厓精舍草創十年中間財力遽屈幾不能成弘也發憤營辦堂齋窓戶皆具適會余退歸之日而吾舍有成天公固解事也喜甚更次前韻〉

위의 시는 遠志精舍를 지은 후 정확히 10년이 되는 1586년에 완성한 玉淵書堂에서 지은 시이다. 제목에서 보이는 北厓精舍는 옥연정사를 가리키는데, 「西厓年譜」에 보면 서애 45세 때인 1586년 丙戌年에 北潭에다 서당을 지었다하여 별칭으로 北厓精舍¹⁰³⁾라고 한 것이다. 1, 2句는 자연 속 깊숙이 자리한 서당에서 바라 본 가을 저녁의 풍경을 비교적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푸른 산이 겹겹이 두른 가을 저녁 밤하늘엔 한 조각달이 떴고 강가는 고요하다. 3, 4句에서는 옥연서당을 짓기 시작한지가 10년이었음을 얘기하고 드디어 완성된 정사를 바라보며 비로소 얻게 된 진정한 隱者의 거처를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다. 5, 6句에 나타난 ‘蓴鱸’¹⁰⁴⁾는 隱者이고 싶은 자신의 바람이 현실 속에서 실현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표현되고 있다. 7, 8句에 나타난 山僧은 옥연서당을 짓게 재원을 준 誕弘이라는 스님을 얘기한다. 스님의 도움으로 강가 언덕에 자리를 잡게 된 옥연서당은 隱者다운 기풍으로 깊은 산 속에 자리하게 되었다고 했다. 마지막 두 구절에서는 완성된 정사에서 공부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흘러간 세월로 인해 이제는 늙고 외롭지만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벗이 있음을 감사하고 있다.

我有數尺軀	나는 몇자 되지 않는 몸으로
半生寄塵埃	반평생 속세에 머물렀네
今朝挾天風	오늘 아침 부는 바람 타고
飛上最高臺	가장 높은 누대로 올라왔네
二儀分高下	하늘과 땅 위 아래로 나뉘었고
三光自縈廻	해, 달, 별 저절로 운행하네
招呼兩黃鵠	두 마리 황곡을 불러내어

103) 『西厓集』 「年譜」 神宗皇帝 萬曆 14年 丙戌, “玉淵書堂成先生既作遠志精舍猶恨迫近村間就北潭欲作小宇爲終老計有僧誕弘者自請幹其後資以粟帛越十年乃成.”
 104) 蓴鱸 : 蓴羹鱸膾의 준말로,晋나라 張翰이 고향 명산인 순채국 농어회를 먹으려고 관직을 사퇴하고 고향에 돌아간 고사를 말한다.

聊可與徘徊¹⁰⁵⁾ 그런대로 배회하며 노닐리라.

위의 시는 遠志精舍를 지은 후 그 곳이 너무 마을과 가까운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더 깊이 은둔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짓게 된 玉淵서당의 ‘達觀臺’란 곳에서 지은 시이다. 서애는 예전에는 마을과 가까워서 속세의 틀에서 확실히 벗어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였다가, 이곳처럼 마을과의 멀리 떨어진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사는 것에 대해 매우 흡족해 하는 심정을 그리고 있다. 서애는 시의 1, 2句 에서도 언급했듯이 별로 대단치 않은 자신이 관료로서 평생을 임했다는 것에 대해 늘 송구해 하였다. 정말로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기보다는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자신을 인정해 준 임금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표현된 것이라고 하겠다. 조정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시기를 ‘塵埃’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낸 것을 보면 그동안 지냈던 은둔에 대한 갈망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상상하게 한다. 3, 4句에서는 앞 구절 속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반평생동안 속세에서 묻혀 살면서 자유롭지 못했던 삶에서 벗어나고자 그토록 바라던 脫俗的 삶을 바람 타고 가장 높은 樓臺에 오른다는 표현으로 형상화했다. 5, 6句에서는 자연스러운 천지 운행을 표현했고 7, 8句에서는 황곡을 타고 자유롭게 배회하고자 하는 희망을 그리며 속세를 떠나서 자유롭게 유유자적하는 자신을 상상하며 그리고 있다.

陶令有好懷	도연명은 마음 속 품은 바 있어
歸來自彭澤	彭澤으로부터 돌아왔다네
園林日無事	정원 숲엔 날마다 일이 없고
獨居間松竹	송죽 사이에 홀로 산다네
寧從田夫飲	차라리 농부를 쫓아서는 먹지만

105) 『西厓集』 권2, 〈玉淵十詠效李白姑熟十詠〉 中 〈達觀臺〉

不食將軍肉	장군의 호사스런 음식 안 먹네
彈琴不用絃	거문고는 줄 없이도 연주하고
漉酒時用巾	술 거를 땀 머리 두건 사용한다네
此翁眞可人	이 노인이 眞人이니
心地少縈磷	마음에는 조금도 때로 물들지 않네
可嘆陶弘景	도연명의 넓은 경계에 탄복하니
久掩□□□ ¹⁰⁶⁾	오래 동안 □□□ 덮었다네
晚日聞相名	늦게까지 재상의 명성 알려졌으나
汚我薜蘿衣 ¹⁰⁷⁾	은자 되고 싶은 맘만 더럽혔네

서애의 시에는 도연명이 속세로부터 전원으로 돌아오는 그 정신을 높이 평가한 시들이 많이 있다. 위의 시는 정확한 제목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도연명이 살았던 은자적 삶과 정신의 궤적을 밟아가며 隱逸에 대한 戀情을 드러내고 있다. 1~6句까지는 도연명이 행했던 행동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때론 속세로부터 항거하고 비록 풍요롭지는 않지만 마음만은 편한 한 인간의 심정을 설명하고 있다. 진나라 彭澤의 현령으로 있을 때, 郡에서 보낸 관리에게 예복을 하고 보라는 명에 대해서 닷 말의 곡식 때문에 소인 앞에서 허리를 굽힐 수 없다고 하고, 차라지 名利를 버릴지언정 고결한 정신을 버릴 순 없다며 ‘歸去來辭’를 읊으며 돌아온 그의 정신을 높이 사고 있는 것이다. 7, 8句는 도연명이 고향으로 돌아와 유유자적한 그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 두 구절과 같은 생활이 곧 서애가 추구하는 삶이기도 한 것이다. 9句부터는 그러한 도연명의 삶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眞人이라는 평을 내리고 도연명이 살았던 그 景概에 대하여 탄복하고 있다. 마지막 두 구절에서는 이제까지 읊었던 眞人 도연명의 삶과 자신의 삶과 비교하면서 비록 재상의 직책으로 오랜 명성은 얻었으나 三恨의 하나였던 학

106) □□□는 『서애집』에도 빠져 있는 缺字임.

107) 『西厓集』 「續集」, 〈題未詳〉

업과 脫俗하여 살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회한의 어조로 읊으면서 은자이기를 바라는 생각을 강하고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朝出拾橡東山巔	아침엔 동산 마루에서 상수리 줍고
暮出拾橡東山足	저녁엔 동산 아래에서 상수리 줍네
朝朝暮暮拾橡去	아침저녁으로 상수리 주우러 가니
衣裳穿結脚不襪	옷은 다 헤어지고 발은 맨발이네
今年橡林多結子	올해엔 상수리 열매 많이 열려
風飄滿地金丸落	바람불면 온 땅에 가득하네
老夫衰病不出門	노인 병들고 쇠약하여 문밖 출입 안 했으나
尙爲資生謀口業	오히려 살려고 먹을 것은 찾네
辛勤日日不知疲	날마다 부지런히 피로도 모르고
坐對筠籠時一噓	대바구니 마주 대고 앉아 꺾꺾대네
呼童束薪四澗底	아이 불러 시냇가 나무 주어다가
石鑪煮熟甘如蜜	돌 솥에 삶으니 꿀맛 같네
食飽負手下庭行	배부르면 뒷짐지고 뜰 아래로 내려가니
自笑前時五鼎食 ¹⁰⁸⁾	그 옛날 五鼎食 절로 우습네

위의 시는 고향으로 되돌아 온 작자가 아이들과 상수리 열매를 주우며 지낸 하루의 일과와 거기서 느끼는 일상의 소박한 행복을 그린 시이다. 전형적인 전원 생활로 자연 속 생활을 비교적 자세하게 적고 있는데, 나이 들어 아이들과 소요하며 걷는 산과 들녘의 풍경은 그야말로 서애가 늘 꿈꿔왔던 삶이다. 그것이 비록 신선놀음은 아니더라도 자신을 괴롭게 하던 관료의 지위에서 벗어나 한껏 자연을 즐기며 자연 속에서 소요하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라는 것이다. 쇠약한 몸을 이끌고 나와 아이들과 주어온 상수리 열매를 바로 솥에 삶아 먹는다는 구절이

108) 『西厓集』 권2, 〈山中無事與兒輩拾橡偶吟爲戲〉

바로 그러한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 마지막 구절에서는 옛날의 五鼎食이 부럽지 않다는 말을 통해서 지금의 생활에 대해서 매우 만족해하는 심정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자족감은 지난 날 나라의 祿을 받으며 생활한 삶과 농촌에서 사는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소박한 전원생활이 결코 궁색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나온 것이라고 하겠다. 이 시는 은자처럼 사는 자신의 삶에서 평범한 삶의 진리를 깨닫는다는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한 시였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자연에 문혀 경관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담아낸 서애의 시들을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교화적인 의식과 달리 자연을 平淡하게 그리는 정신이 잘 표출되어 있는데, 遠志精舍와 玉淵書堂를 배경으로 한 일상적인 시골정취를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그려낸 시들에선 감각적이되 화려하지 않은 서애의 평담한 시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文學史的 意義

西厓 柳成龍이 활동하던 16C는 黨爭과 倭亂 등으로 사회적 혼란을 겪었지만 문학사에 있어서는 문학이 융성한 시기였다. 사회적 혼란 등으로 새로운 가치관이 필요하게 된 宣祖代에는 16C의 사림과 문인들에 의해서 퇴계의 기반 위에 완성된 성리학적 사상과 문학이 全盛을 이루었다. 올바르게 교화적인 글을 통해서 사회를 바르게 구현하려는 가치를 중시한 성리학이 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서, 문학관은 문장 속에 올바른 가치를 담아내는 文以載道的 성향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16C 후반으로 이어지면서 지나치게 說理的으로 변모하게 되어 文보다는 理를 중시하는 쪽으로 변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6C 말 詩壇에는 지나치게 說理的이고 江西詩派의 형식미를 중시한 宋詩에서 벗어나 主情的이고 흥취를 중시하는 唐詩로 옮겨가는 움직임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성리학적 사상과 문학관이 시대 전반의 뿌리를 내린 상태에서 일기 시작한 唐詩風의 作詩현상은 성리학적 문학의식과 서로 다른 문학양상을 이루었고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穆陵盛世라고 불리는 문예부흥기가 형성되었다.

사림과 문인의 의해서 이루어진 文以載道的 성향은 서애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 글 속에 올바른 가치를 담고자 하는 文以載道的 문학관을 지녔던 서애는 <詩敎說> 과 <鳶飛魚躍> 등의 글로 자신의 문학관을 구체화하여 드러냈다. <詩敎說> 에서 서애는 공자의 생각을 재확인하면서도 한층 구체화된 설명을 덧붙였다. 시란 정서순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가지는 동시에 언어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이해하였고, 인간 윤리적인 면에서는 어버이와 임금을 섬기는 성정도야의 수단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척도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興觀群怨’ 중 ‘怨’ 에 대해

서는 그것이 격한 감정이 아니라 正度를 벗어나지 않는 당연한 감정이며, 이런 감정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鳶飛魚躍〉에서는 세상 모든 만물에는 이치가 담겨있듯이 문학적 소재 중에서도 이러한 이치를 찾고 교훈을 얻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詩言志’의 생각을 피력하였다.

또한, 서애는 唐詩風이 진작되기 시작한 16C 말에 〈書亂後詩稿後〉, 〈詩意〉, 〈蘭雪軒集跋〉 등의 글을 통해서 淸遠하고 沖澹한 심미적인 문예의식을 드러냈다. 서애는 시의 격조는 형식에 있지 않고 말 밖의 뜻에 있다고 했고, 시를 평가하는 기준을 시에 담긴 興趣나 餘韻에 두었다. 이러한 문예의식은 許蘭雪軒의 시집을 보고 평한 〈跋蘭雪軒集〉에서 ‘허공의 꽃이나 물 속에 비친 달과 같아서 형철 영롱하여 눈여겨 볼 수가 없고, 소리가 울리는 것은 형옥과 황옥이 서로 부딪히는 것이며, 남달리 뛰어나기는 승산과 화산의 빼어남과 닮은 듯 하다.’라고 한 評에서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서애가 시의 핵심을 妙悟를 통한 시인의 내면정신에 두고, 맑고 심원하며 깊고 담박한 言有盡而意無窮의 심미적 관점을 중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7C 비평가 김만중은 그의 비평집에서

서애 류성룡은 경세지문이었다. ... 하지만 그가 이백의 동정호 시와 유우석의 대제시를 논한 견식의 탁월함은 지봉유설에서 찾는다 하더라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동정호 시는 사람이 다들 좋아하는 바이지만 대제시 같은 것은 사실 공의 독창적인 견해이니 역시 그의 재주와 지식이 보통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⁰⁹⁾

109) 『西浦漫筆』 下, “柳西厓經世之文…而其論李白洞庭湖 劉禹錫大堤詩 見識之超卓 求之類說不可得也 洞庭湖人所共喜 若大堤則 實公之獨見 亦可見才智之出人也.”

고 하였는데, 이것은 서애가 쓴 〈詩意〉를 보고 내린 평으로 비록 경세가로서 효용적인 글을 썼던 서애였지만 李白과 劉禹錫을 평가하면서 드러낸 시의식은 독창적이었다고 칭찬하고 있다. 또, 17C 대표적 시화 비평가였던 許筠이 ‘문장은 西厓 재상을 따라서 배웠다.’¹¹⁰⁾라고 했던 것에서 보면, 16C 정치관료로서 역할이 두드러졌던 서애가 當時에 문예적 재질에 있어서도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서애는 詩 형식에 있어서는 餘韻과 餘情의 효과가 두드러진 7언 절구를 주로 썼다. 詩 내용에 있어서는 詩敎的 觀點을 가지고 文以載道的 의식을 시로 표현하였는데, 자연을 보면서 이치를 읽고자 했던 ‘吟詠性情의 面貌’와 인간적 도리에 관한 생각을 담은 ‘人間的 苦惱의 表出’에서 이러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審美的 觀點을 가지고 자연을 관조하며 느낀 자연스러운 감흥을 순수한 흥취로 세심하면서도 회화적으로 그렸는데, 자연을 바라보되 감흥을 자연스럽게 읊은 ‘自然 觀照的 興趣’와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을 담담히 그려낸 ‘隱人 脫俗으로의 希求’에서 이러한 면모가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西厓 柳成龍은 16C 사림파로서 지녔던 文以載道的 사상을 시교적 문학관으로 확립하여 글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서술했고, 흥취와 직관을 중시한 唐詩的 문예의식을 다양한 시작품을 통해서 드러내 보였던 것에서 當時의 문학적 상황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대표적 문인 중 한 사람이라는 것에 그 문학사적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기존의 정치적 연구 관점에서 탈피하여 16C 穆陵盛世的 문학적 다양성 속에서 사림파의 성리학적 의식과 더불어 當時의 審美的 문예의식을 두루 지녔던 문인임을 詩를 통해서 새롭게 조명함에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110) 『惺所覆瓿藁』 권10 「答李生書」, “仲兄自適還 始敎以古文 文從西厓相學 詩從孫谷學 方知文章之經 在是不在彼.”

VI. 結 論

지금 까지 『西厓集』을 중심으로 西厓 柳成龍의 詩文學을 고찰해 보았다. 서애가 활동했던 16C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한 시대로써, 안으로는 당쟁이 발생했고 밖으로는 임진왜란이 발생하여 나라의 존립이 위태로웠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의 시대 속에서 문학은 융성하였다.

中宗이후 중심세력으로 등장한 사림과 문인들은 정치적 기반을 굳히면서 문학적인 면에서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수사적 기교를 반대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文以載道’ 문학관을 형성했다. 또 이렇게 성리학 사상이 정점에 이르러 전반적인 토대를 이루게 되었을 때 이러한 관점에 반대하면서 說理的 宋詩에서 벗어나 主情的 唐詩를 중시하는 관점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즉, 16C는 시대 전반을 통해 자리잡은 文以載道的 문학관의 완성도가 높아진 시기였고, 이러한 문학 양상에 반대하며 싹트기 시작한 唐詩的 詩風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한 시기였던 것이다. 이러한 성리학적 사상이 시대 전반을 이루면서도 다른 성격의 문학관이 병립하는 16C는 후일 宣祖代를 穆陵盛世라고 부르는 배경이 되었다.

서애는 어려서부터 총명이 남달라 일찍부터 학문에 힘썼는데 21세 되던 해에는 형 謙庵 柳雲龍과 함께 도산서원으로 들어가 이황으로부터 『近思錄』을 배우며 성리학을 전수 받았다. 당쟁이 심화될 무렵에는 남인의 영수로서 혼란했던 시기를 지냈고 또 임진왜란이 일어난 시기에는 이순신이나 권율 등의 장수를 천거하며 오랜 기간 경세가로서 그 역할을 다했지만 잠시 물러나 있을 때나 고향에 있는 동안 遠志精舍나 玉淵書堂 등의 한적한 處所를 지어 은거하며 詩文활동을

하였다. 서애가 교유했던 인물을 살펴보면 사상적으로 영향을 받는 스승 퇴계 이황이 있고, 학문으로 교유한 同學 학봉 김성일이 있으며, 제자로서 우복 정경세 등이 있다. 또, 허봉과 허균 등과는 시와 문장에 바탕을 두고 교유했다.

서애의 문학관은 사림과 문인으로서 지닌 시교적 관점과 시 속에는 부화하고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흥취를 통해 시인의 내면의식이 드러나야 한다는 심미적 관점이 있다.

〈詩教說〉과 〈鳶飛魚躍〉에서 서애는 혼란한 사회를 바로잡을 올바른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의식 아래, 문장은 겉으로 꾸미는 것보다 내용에 있어 올바른 性情을 함양하여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야 한다는 시교적 문학관을 드러냈다. 또, 〈詩意〉와 〈書亂後詩稿後〉 그리고 〈跋蘭雪軒集〉에서는 시를 평가하는 기준을 시에 담긴 흥취나 시인의 의식에 두고 부화한 형식과 기교를 반대하는 심미적 문학관을 드러냈다. 이렇게 서애는 문이재도적 사상과 문예의식을 각각의 문학관으로 정립하여 글로 남긴 것이다.

본고에서는 서애의 시세계를 내용에 따라 1) 吟詠性情의 面貌, 2) 人間的 苦惱의 表出, 3) 自然 觀照的 興趣, 4) 隱人 脫俗으로의 希求로 나누었다. 1) 음영성정의 면모에서는 모든 자연 속에는 각자의 이치가 담겨 있으므로, 시인은 ‘以物觀物’의 자세로 자연물의 이치를 발견해내어 글을 통해서 나타내어야 한다는 의식이 담겨있었다. 2) 인간적 고뇌의 표출에서는 일찍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관료적 지위를 자신이 잘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경세가로서 東奔西走하면서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부모님의 안위에 대한 걱정 등이 시를 통해서 절절히 드러났음을 보았다. 3) 자연 관조적 흥취에서는 빼어난 자연의 풍광 속에서 느낀 자신의 흥취를 표출한 서정적 면모를 볼 수 있었다. 고요한 정사에서 悠悠自適며 바라본 달, 비, 구름 등의 자연물을 감각적으로 묘사한 서애의 시들에서는 감각적 언어표현도 볼 수 있었다. 4) 은일 탈속으로의 회구에서는 出에 대한 반동으

로 늘 處를 갈망하면서 遠志精舍나 玉淵書堂 등지에서 자연과 하나되어 사는 은자적인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다.

본 研究는 서애의 정치가로서의 면모만을 조명해왔던 지금까지의 시각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서 그의 문인으로서의 면모를 조명하였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그 의의를 찾는다면, 서애는 16C 문예부흥의 시기에 文以載道的 사상을 詩敎的 문학관으로 확립하여 글로 구체화시켰고, 唐詩的 문예의식을 흥취와 여운의 심미적 관점으로 담아 詩로 드러냈다는 것을 조명한 것이라고 하겠다. 문인으로서의 성격을 드러내는 시작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명되지 않았던 서애의 문학적 면모를 구체적 작품을 통해서 조명한 이 연구는 西厓 柳成龍에 관한 연구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더불어, 이번 연구로써 정치가로서만 조명되었던 서애가 문인적인 면모로 다시금 재조명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參 考 文 獻

1. 基本資料

柳成龍, 『西厓集』 韓國文集叢刊 52, 민족문화추진회, 1990

柳成龍, 『西厓全書』, 서애선생기념사업회, 1991

李 滉, 『退溪全書』, 대동문화연구원, 1958

周 熹, 『論語集註』, 학민문화사, 1990

_____,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 1958

_____, 『宣祖大王修正實錄』, 민족문화추진회, 1989

2. 單行本

김호종, 『서애 류성룡 연구』, 새누리, 1994

김만중, 『서포만필』, 一志社, 1990

송궁섭, 『서애 선생의 기본사상』, 서애기념사업회, 1978

신용호, 『한시형식론』, 전통문화연구회, 2001

안대회, 『조선후기 시화사 연구』, 국학자료원, 1995

嚴 羽, 『滄浪詩話』, 소명출판, 1961

吳戰壘, 『中國詩學의 理解』, 태학사, 2003

劉若愚, 『中國詩學』, 同和出版公社, 1984

이가원, 『한국한문학사』, 보성문화사, 1990

이민홍, 『조선중기 시가의 이념과 미의식』,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0

- 이민홍, 『사림과 문학의 연구』, 月印, 2000
- 이병주 外, 『한문학사』, 새문사, 1998
- 이병한, 『중국고전시학의 이해』, 문학과 지성사, 2000
- 이숙희, 『허난설현시론』, 새문사, 1995
- 이종목,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2002
- 임형택, 『한국 문학사의 시각』, 창작과 비평사, 1984
- 田鶴洙, 『漢詩語辭典』, 국학자료원, 2002
- 정 민, 『한시미학산책』, 솔출판사, 1996
- 정요일, 『한문학비평론』, 집문당, 1994
- 趙則誠 外, 『中國古代文學理論辭典』, 吉林文史出版社, 1985
- 周勳初, 『中國文學批評史』, 이론과 실천, 1992
- 周勳初, 『中國文學批評小史』, 長江文藝出版社, 1989
- 차주환, 『중국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 許筠, 『性所覆瓿藁』, 민족문화추진회, 1986
- _____, 『許氏 五文章家 漢詩國譯集』, 강릉시, 2000

3. 論文

- 구덕희, 「선조대 후반(1599~1608) 정치체제의 재편과 정국의 동향」, 『한국사론20』, 1988
- 노숙영, 「서애 류성룡과 그 문인들의 교육 -시교와 예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제22호, 한국교육사학회, 2000
- 금장태, 「서애 류성룡의 철학사상」, 『한국의 철학』 제23호, 경북대 퇴계연구소, 1995

김호중, 「서애 류성룡의 정치사상 -정치운영과 인재등용을 중심으로-」, 『한국의 철학』 제23호, 경북대 퇴계연구소, 1995

김시황, 「서애 류(성룡)선생 시교설 연구」, 『동방한문학회』 제10집, 1994

김시황, 「서애 류(성룡)선생 문학세계」, 『한국의 철학』 제23호, 1995

김시황, 「겸암 류운용 선생의 생애와 사상」, 『동방한문학』 제20집, 2001

오석원, 「퇴계학파의 형성과 전개 -안동지방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제7집, 동양철학연구회 1996

이우성, 「한국유학사상 퇴계학파의 형성과 그 전개」, 『퇴계학보』 제26집, 퇴계학연구소, 1996

ABSTRACT

A Study on the Poetry of Seoai, Ryu, Sung Ryong

Cho, Min Gyung
Dept. of Chinese Classics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discussed the poetry of Seoai, Ryu Sung Ryong and tried to find the meaning of his poetry in the history of the 16th century literature.

Seoai had a wild field in the 16th century which was a transitional period to pursuit new ideal value as a confusion period because of party strife and Yimjinwaeran(壬辰倭亂). Judging from ideal point of view, Munijaedo(文以載道) completed his literary attitudes at this time and the trend of the Tang poem(唐詩) started to be changed.

Seoai as a disciple of Lee Hwang advanced Confucianism associating with Kim Sung-il and Jung Kyung-se. He also associated with Huh Bong and Huh Gyoun keeping Tang poem.

His literature didn't decorate the composition with splendid style but involved the law of nature and his sprit which should enlighten the society. In other words, he insisted the importance of poet's idea rather than the

style.

This research studied how Seoai's poetry encapsulates the idea of his literature classifying the poems according to the contents -

1) the aspect of Eumyoungsungjung(吟詠性情) involving Muijaedo(文以載道) style consciousness 2) expression of human anguish to be worried about his role in his situation 3) the interest toward nature which gives an inspiration 4) the emotion of the renouncing the world.

Thus, through considering Seoai's poetry and his literature, it is found that Seoai was the person who had a anaesthetic sense of literature as well as a sense of confucianism in the 16th century. Also late in the 16th century when arising the trend of Tang poem, he had already expressed intuitive and sensible interest with a considerable literary consciousness in sorting poetic words and comments.

In conclusion, Seoai, Ryu, Sung Ryong expressed his idea in the poetry involving moral value to educate people. Also he showed his poem with the morality, nature, and aesthetic sense including his critics toward society. It has a great literary meaning to consider Seoai, Ryu, Sung Ryong not as a politician but as a literary man studying his literary sense.